

2020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 제 출 문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연구포럼 귀하

이 보고서를 「문학작품에 투영된 영등포지역의 사회상과 이미지 조사를 통한 문화경쟁력 제고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2.

# 문학작품에 투영된 영등포지역의 사회상과 이미지 조사를 통한 문화경쟁력 제고방안



노동연구포럼  
선문대학교 문학이후연구소

- 연구기관 : 선문대학교 문학이후연구소
- 책임연구원 : 손종업(선문대학교 문학이후연구소, 소장)
- 연구원 : 임영봉(선문대학교 문학이후연구소, 전임연구원)
- 자문위원 : 김정태 의원(운영위원장)  
이광호 의원(노동연구포럼 대표의원)  
진방주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박연정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기획조정실장)  
이용욱 (영등포문화원 사무국장)

(요약문)

# 문학작품에 투영된 영등포지역의 사회상과 이미지 조사를 통한 문화경쟁력 제고방안

선문대 문학이후연구소 손종업 · 임영봉

##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근현대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영등포 지역의 사회상과 이미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에 대한 접근 방법은 (1)영등포 배경 문학작품 발굴 작업을 통해 195편의 수집 작품을 목록화하고, (2)검토 선정된 중요 작품들을 연대별로 분류한 뒤에 개별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지역 사회의 정체성과 변화 과정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시대적 의미 단위들을 구성해 나가는 한편, (3)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특정 공간·장소들과 도시 경관 및 랜드마크의 변화를 추출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검토 선정된 중요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 작업의 결과, 문학텍스트에 반영된 영등포 지역의 이미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전형적 공간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복합공간으로 재개발된 영등포 역사(驛舍)와 주변의 전통시장, 유흥거리가 그것을 말해주듯이 영등포는 과거의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지역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근대화 이후, 영등포 지역의 정체성이 멈추지 않는 '철도'와 부단히 흘러가는 '한강'의 생명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남은 과제로는 먼저, 영등포를 소재나 배경으로 삼고 있는 유의미한 문학작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수집하는 작업을 들 수 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있는 동시에 문학사적 가치까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학작품들은 문학연구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문화콘텐츠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목 차

- I. 서 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 1
- II. 시대의 흐름에 따른 영등포 지역의 사회상과 문학 속의 이미지 ..... 5
  - 1. 영등포의 역사 개관 ..... 5
  - 2. 전통 속의 영등포 ..... 6
    - 가. 아름다운 풍광으로서의 한강..... 7
    - 나. 황포돛배 : 조선팔도를 잇는 아름다운 배 ..... 10
  - 3. 철도 개설과 영등포 ..... 12
  - 4. 일제강점하의 영등포 ..... 16
    - 가. 전통 사회의 해체와 영등포 지구의 형성 ..... 16
    - 나. 영등포역과 민중의 삶 ..... 18
    - 다. 공장지대 건설과 사회운동 ..... 20
  - 5. 6.25전쟁과 전후 영등포 ..... 24
    - 가. 피난민과 한강 도강 ..... 24
    - 나. 전후 복구와 영등포시장 ..... 26
  - 6. 산업화 시대의 영등포 ..... 27
    - 가. 영등포 산업지대의 변화와 발전 ..... 27
    - 나. 도시빈민과 매춘여성 소재 문학 ..... 29
    - 다. 민주화 운동과 노동자 소재 문학..... 33
    - 라. 여의도 개발의 역사와 문학..... 35

7. 오늘날의 영등포 .....	37
가. 과거와 미래의 공존 .....	37
나. 여의도의 약진 .....	45
<b>Ⅲ. 영등포 문학의 양상과 비전 .....</b>	<b>48</b>
1. 영등포의 문학적 성과물들 .....	48
2. 영등포의 세 가지 방향 .....	51
가. 랜드마크 .....	52
나. 영등포의 역사 .....	52
다. 문화의 재생 : 대립동의 사례 .....	56
<b>Ⅳ. 결 론 .....</b>	<b>56</b>

참고 문헌

부록: 수집 문학작품 총목록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본 과업은 한국 근현대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영등포 지역의 사회상과 이미지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영등포구는 서울시의 한강 남안에 위치하고 있다. 영등포구의 동서남북은 동작구 및 용산구, 양천구와 강서구, 구로구, 마포구와 각각 인접해 있다. 한강의 남쪽 대안에 펼쳐진 한적하고 평화로운 농촌이었던 영등포 일대가 크게 변화한 것은 개항 이후 근대 문물이 유입되기 시작하던 시점부터였다. 영등포 지역은 경인선 및 경부선 개통을 통해 한강변 포구라는 전근대적 공간으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로 조성되면서 공업화·도시화의 상징으로 부상했지만, 이후 산업화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주변도시로 부침을 거듭한 바 있다.

개항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겪게 되는 영등포 지역은 격동하는 역사와 삶의 현장이었다. 본 조사연구는 일차적으로 영등포 지역의 역사와 삶을 시기별로 다양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문학작품을 수집 정리하고자 하며,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 검토 과정을 통해 문학텍스트에 반영된 지역 사회의 변화하는 모습과 고유의 이미지를 추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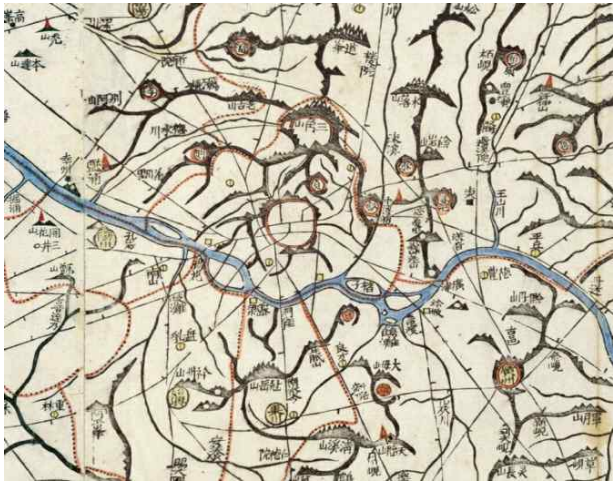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조사 연구를 통해 서울의 3대 도심으로 선정된 영등포 지역의 역사문화를 재조명함으로써, 지역의 미래비전 수립 및 역사문화 자원 발굴, 문화경쟁력 제고방안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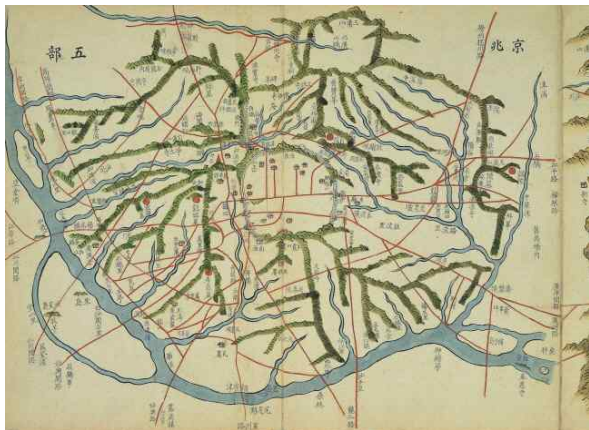
본 조사 연구의 대상은 영등포 지역을 배경으로 삼거나 소재로 다루고 있는 한국 근현대 문학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시간적으로는 대한제국 개국 무렵(1895년)으로부터 2020년 현재까지 발표되었고, 공간적으로는 현행 행정구역 상의 영등포구 관할 지역을 소재와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경우이다.

본 조사연구의 대상 지역인 영등포구 일대의 역사는 전통적인 지방행정조직단위의 변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지명으로 등장하고 있다. 고대의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이 지역 일대는 잉벌노현(仍代奴縣)이나 곡양현(穀壤縣)에 속했고, 고려시대에는 금주현(衿州縣)이 되었다. 그 뒤 조선시대에 들어서서는 금천현(衿川縣)으로 불리다가 정조 19년(1795) 시흥현(始興縣)으로 바뀌었다.

〈지도1〉 대동여지도(서울부분, 김정호, 1861)



〈지도2〉 경조오부(대동여지도특별도, 김정호, 1856)



영등포라는 지명은 『호구총서(戶口總數)』(1789)라는 문헌에서 경기도 금천군 하북면에 속한 마을 이름(永登浦里)으로 처음 등장한다. 영등포는 마을 이름이면서 구의 이름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등포구라는 구명(區名)은 영등포리(永登浦里)라는 이름의 포구 마을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 포구 마을의 위치는 방아곶이나루(방학호진)라는 설이 널리 퍼져 있다. 영등포 로터리와 당산동 사이 영등포 3동의 셋강 주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sup> 영등포라는 지명

의 유래와 관련해서는 ‘영등굿’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다. 영등굿은 무속신앙의 하나로 음력 2월 초하루인 영등날을 맞아 보름동안 벌이는 굿이었다. 풍우를 관장하는 영등할머니(靈登神)가 2월 초하룻날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의 생활을 살피고 다니다가 보름날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영등굿을 했던 포구마을이라는 뜻에서 영등포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는 주장이다.<sup>2)</sup> 한편으로는 ‘오라개’의 차자표기로 보는 주장도 있다. 여기서 ‘오라’는 성인식과 관련된 말로서 성인식이 행해지던 장소나 성인식을 통해 어른이 된 사람을 뜻한다. 영등포를 오라개가 아닌 한자음 영등포(永登浦)로 부르게 되면서 표기 또한 영등포로 하게 되었다는 관점이다.<sup>3)</sup> 그러나 ‘오라’와 ‘영등’ 사이에 음차가 너무 크다는 점, 성인식과 연결된 ‘오라’가 일본어로 ‘밭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뉴질랜드의 반지점프 등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류의 성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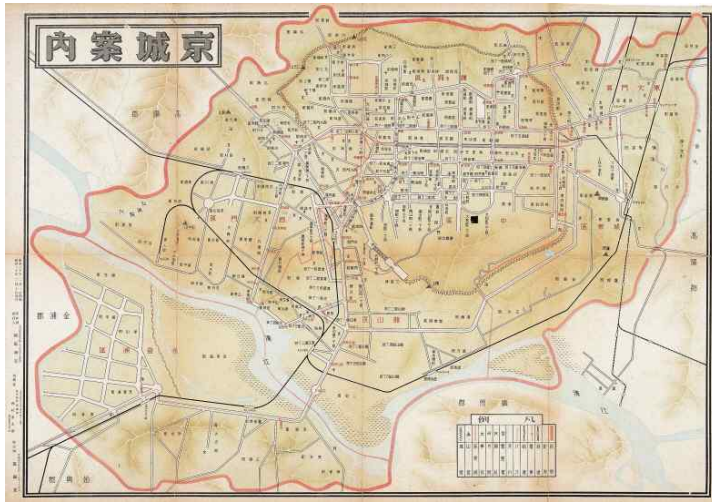
이밖에도 종교적 의미의 연등회거나 강상의 등불놀이, 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데에서 영등포의 지명이 유래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등포가 영등굿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영등포 강안에 인접한 여러 개의 신당이나 부군당의 존재를 떠올린다면 영등포 일대가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를 가리킬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사실, 지명의 유래만큼이나 영등(靈燈)이 영등(永登)으로 자리잡게 되는 과정에도 주목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수도 한양의 관문으로서 풍광이 아름다웠던 이곳 포구에 대한 대중들의 염원이 시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등포리는 개항 이후 이루어진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경기도 시흥군 북면에 속했다가 1917년 9월에 영등포·당산·양평 3개 리가 합해져 ‘영등포면’이 되었다. 이후, 1931년 읍제의 시행과 함께 ‘영등포읍’으로 변경되고 영등포정(永登浦町)에 영등포출장소가 설치된 1936년 4월 경성부에 편입되었다. 현행 ‘영등포구(永登浦區)’라는 행정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경성부에서 구제(區制)를 실시했던 1943년이 었다.

1943년 구제의 시행과 함께 ‘영등포구’로 승격한 이후, 6.25전쟁기와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영등포구는 계속하여 확대발전하면서 인근 지역들을 관할구로 편입해 나가지만 1970년대 들어 급격한 도시인구 팽창에 의해 인근 지역들을 다른 구에 차례로 넘겨주고 오늘날의 관할 지역이 되었다.

1) 민궁기, 『영등포의 역사와 지명이야기』, 국학자료원, 2013, 61면.  
 2) 편찬위원회, 『永登浦區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991, 495면.  
 3) 민궁기, 앞의 책, 78면.

〈지도3〉 경성안내(지성당, 1945)



〈지도4〉 영등포구 행정동



2020년 현재, 영등포구의 관할 지역은 영등포동(永登浦洞), 여의동(汝矣洞) 당산동(堂山洞 1·2동), 도림동(道林洞), 문래동(文來洞), 양평동(楊坪洞 1·2동), 신길동(新吉洞 1·3·4·5·6·7동), 대림동(大林洞 1·2·3동) 18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있다. 면적은 24.37km<sup>2</sup>로서 서울시 총면적의 4.0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현재 관내 인구는 367,678명이다.

본 조사 연구는 일차적으로 영등포 지역 일대를 소재나 배경으로 삼고 있는 다양한

문학작품을 발굴하여 목록화 하고자 한다. 현재, 수집한 영등포 배경 문학작품은 시, 소설, 산문 분야에 걸쳐 있으며 총 편수는 196편이다. 이 목록을 바탕으로 검토 선정된 중요 작품들을 장르별 연대별로 분류한 뒤에 작품 속에 나타나는 사회상과 이미지를 분석해 나갈 것이다.

〈표1〉 수집 문학작품 현황

시	소설	산문	총 계
101편	67편	27편	195편

본 연구에서 대상 작품의 사회상과 이미지에 대한 분석 작업의 기본 범주를 이루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과 변화 과정을 담지하고 있는 시공간적 배경이다. 개별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지역 사회의 정체성과 변화 과정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시대적 의미 단위들을 구성해 나가는 한편, 지역사회의 특정 공간·장소들과 도시 경관 및 랜드마크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고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인간과 공간이 맺고 있는 유대관계를 강조할 때 인간이 깃들여 사는 공간의 변화는, 곧 삶(사회)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II. 시대의 흐름에 따른 영등포 지역의 사회상과 문학 속의 이미지

### 1. 영등포의 역사 개관

조선 후기, 영등포 지역은 경기도 시흥현 하북면과 상북면, 남산면에 속해 있었다. 한양 초입이긴 하지만 풍수적인 의미에서 마땅한 주산이 없고, 저지대에 속해 있어서 자주 강물이 범람하는 곳이었다. 강 건너편 마포와는 달리 한강의 남안에 위치해 있었기에 발전이 더더지만, 한강 주변과 황포돛배들의 존재가 아름다운 풍광을 이루는 곳이었다.

개항 이후에 영등포 지역은 두 가지 점에서 커다란 변혁을 맞이하게 된다. 그 하나가 경인선과 경부선의 개설이라면, 다른 하나는 철도 부설에 따라 영등포가 교통과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이다. 1910년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조선이 강점되면서 행정관할 구역도 새로 제정 시행되었는데 경기도 시흥군에 있었던 군청을 하북면 영등포리로 이전하게 된다. 이후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영등포리, 당산리, 양평리를 관할하게 되는 ‘면’이 되었다.

이처럼 교통과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변모하면서 영등포 지역에는 영등포역과 공장의 높은 굴뚝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영등포 지역은 식

민지 시기 내내 독립운동과 노동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한다. 한국전쟁 시기에 영등포 지역에는 도강증을 지니지 못한 이민들이 유입되는 곳이었으며, 세계화 이후에는 조선족과 외국인노동자들의 터전이 되었다.

영등포 지역의 또 다른 변화는 여의도와 한강의 개발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회의사당과 '5.16광장'이라 불렸던 광장, KBS방송국 등이 세워지고 마침내 63빌딩이 서울 타워와 함께 서울의 랜드마크를 형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의도는 수많은 이야기가 켜어지는 한국 정치의 생생한 현장이자 금융의 허브이면서 첨단 언론의 총화로써 강남 지역과는 구별되는, 중산층이 전망하는 서울의 신주거 지역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미래의 영등포 지역은 남북한 경제협력과 중국 서해안과의 경제벨트 구축을 통해 동아시아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강이 지닌 문화적 의미는 무궁무진하고 이로부터 내륙과 바다, 하늘이 닿아 있는 영등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 2. 전통 속의 영등포 : 한강과 돛배

영등포 지역은 북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마포구와 마주하고 있고, 관악산과 호암산, 독산 산맥이 눈 앞의 저 멀리에서 펼쳐지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영등포구는 관내에 큰 산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 저지대에 속해 있어서 자주 홍수를 겪어야 하는 곳이기도 했다.

〈지도5〉 동여도(고산자, 철종 연간)



개항 이전의 구한말 무렵까지 영등포 지역은 다른 어느 고장과 마찬가지로 한촌이었다. 작가 황석영은 『철도원 삼대』에서 근대 이전의 영등포 지역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

고 있다.

영등포는 수십호 정도가 채소를 기르며 살던 가난한 농촌이었지만 십년 전부터 경부선 공사가 착수되면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했다.<sup>4)</sup>

영등포가 원래 모래땅이고 여름이면 물이 드는 게 늘 있는 일어서 겨울만 빼고는 언제나 땅이 질척거렸다. 그러니 오래전부터 주민들은 영등포를 진등포라고 자조하여 불렀다. (중략) 진등포에 살려면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는 말이 돌았다.<sup>5)</sup>

『철도원 삼대』에서 이야기의 주요 배경지인 영등포는 구한말의 시점까지 한강 유역의 모래땅에 채소를 키우며 살아가는 농촌으로 그려지고 있다. 홍수철이 되면 영등포는 땅이 질척거려 '진등포'라고 불렀고, 진등포에서는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는 우스개 말이 회자되었던 곳이다. 『철도원 삼대』에는 경인경부 철도개통 이후의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해마다 물난리를 겪었던 영등포 일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서술되어있다.

### 가. 아름다운 풍광으로서의 한강

한강 남안을 끼고 넓게 펼쳐져 있는 들판을 일구어 살아가는 한가롭고 평화로운 농촌마을이었던 영등포는 한강에 연해있는 일대의 경관으로 유명했다. 1741년 무렵 양천 현감을 지내고 있던 겸재 정선은 한강 남안 영등포에 접해있는 선유도(仙遊島)의 풍광을 그림으로 남겨 놓았다. 조선시대 산수화의 대가였던 겸재는 선유봉(仙遊峰)과 주변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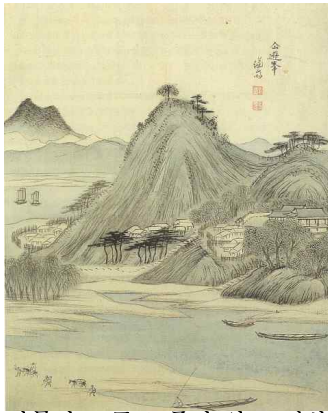
선유봉의 아름다운 풍광은 널리 알려져 중국 사신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기도 했다. 『인조실록』에는 “다주례(茶酒禮)를 행하여 한 잔 든 후에 배에 올라 증류로 가 좌상에서 행주(行酒)하게 하여 10여 순배에 이르렀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유봉에 이르러 해가 이미 황혼이 되어 촛불을 밝히고 배를 돌렸는데, 아주 흡족하게 즐기었다. 과할 무렵에 여러 사람을 앞에 늘어서도록 하여 한꺼번에 행주하였다.”<sup>6)</sup>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선조실록』에서는 “오늘 양사(兩使)가 양화도에 이르러 잠두봉에 오르지 않고 곧장 선소(船所)로 갔습니다. 이어 배를 띄우고 물결을 따라 내려가 거의 10리쯤 지나 강 마을 절벽 아래에 이르자 배에서 내려 걸어 올라갔습니다. 오랜 비

4) 황석영, 『철도원 삼대』, 창비, 2020, 45면.

5) 황석영, 『철도원 삼대』, 창비, 2020, 76~77면.

6) 『인조실록』, 1626.6.19.

(그림1) 정선의 '선유봉'



뒤에 날씨가 새로 개었고 강물이 조금도 줄지 않고 넘실거리 물살이 몹시 세었습니다. 신들은 거슬러 올라가기가 어렵고 야심한 시각이 될까 싶어 남호정(南好正) 등으로 하여금 물길이 너무 멀다고 고하게 하였습니다. 양사가 희롱하며 '큰 바다에 이르렀다가 올 때 꼭 강변에서 자겠다' 하였습니다. 이어 선유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즐기면서 강산의 풍경이 좋다고 극구 칭송했습니다.”<sup>7)</sup>라고 적고 있다.

선유봉은 한강의 절경 중의 하나였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신선이 놀았다는 한강 선유봉의 아름다운 풍경을 시문으로 남겼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서예가였던 서명응(徐明膺)은 자신의 문집 『보만재집(保晩齋集)』에 한강 주변의 풍경을 '서호십영'(西湖十詠)이라는 열 편의 시로 남겨 놓았다.

- 백석한조(白石早潮) : 흰바위에 이는 잔잔한 물결
- 청계석담(靑谿夕嵐) : 청계산의 저녁 아지랑이
- 울서우경(栗嶼雨耕) : 밤섬의 빗속 밭갈이
- 마포운범(麻浦雲帆) : 마포의 구름처럼 떠있는 돛단배
- 조주연류(鳥洲烟柳) : 새섬의 연기와 버들가지
- 학정명사(鶴汀鳴沙) : 방학다리 아래 백사장
- 선봉범월(仙峰泛月) : 선유봉 강물에 비친 달빛
- 농암관창(籠岩觀漲) : 밤섬 앞 농바위에서 보는 파도
- 노량어조(露梁漁釣) : 노량진에서의 낚시질
- 우잠채초(牛岑採樵) : 와우산에서 땀나무하기<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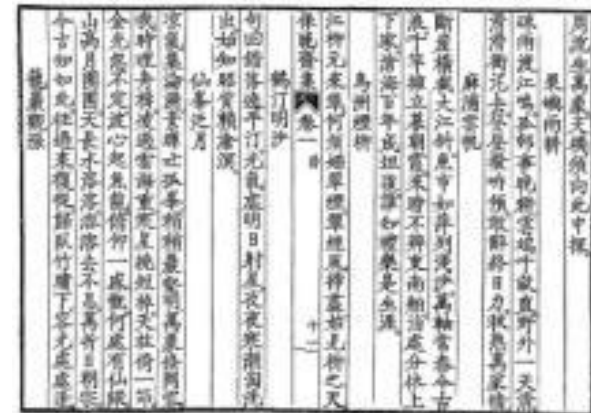
7) 『선조실록』, 1595.6.5.

8) 서명응, 「서호십영(西湖十詠)」, 『보만재집(保晩齋集)』.

서호십영(西湖十詠)에서의 '서호'란, 마포와 서강·양화진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 열 편의 시에는 건너다보이는 한강 남안의 풍광까지 그려져 있다. '방학다리 아래 밟으면 소리나는 모래밭'을 그린 「학정명사(鶴汀鳴沙)」는 영등포 쪽의 풍경을 그린 경우이다.

감싸고 돌아 떨어져 앉은 나지막한 모래섬 (包回錯落堯平汀)  
 빛도 기운도 헛된 이름이라 해가 별을 비추네 (光氣虛名日射星)  
 밤마다 한물결이 행구고 닦고 물러가니 (夜夜寒潮淘洗出)  
 비로소 바다가 의지하는 맑은 자질을 알겠네 (始知昭質賴滄溟)

(사진1) 서명응 문집, 『보만재집(保晩齋集)』



「학정명사(鶴汀鳴沙)」는 '학이 노닐던 호수'(放鶴湖)와 같았다는 한강 여의도 셋강 일대의 아름다운 풍경을 읊은 시이다. '방학호'라고 불렀던 여의도 셋강과 그 인근에 방학호진(放鶴湖津)나루터와 방학정(放鶴亭)이 있었다고 전한다. 서재응의 '서호십영'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힌 것은 '선유봉 아래 강물에 비친 달'을 노래한 「선봉범월(仙峰汎月)」이었다고 한다.

선유봉과 주변의 강안을 따라 길게 펼쳐진 모래밭의 풍광은 못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는데 조선 중기의 문장가 차운로(車雲輅)는 양화나루 주변의 석양 풍경을 시에 담았다.

버들꽃은 눈처럼 가득 내리고 (楊花雪欲漫)  
 복숭아 꽃은 붉게 타오르네. (桃花紅欲燒)  
 저물어가는 강 그림 그리듯이 수를 놓고 (繡作暮江圖)

서쪽 하늘에는 낙조가 드리웠네. (天西餘落照)

차운로의 「양화석조(楊花夕照)」가 그리고 있는 것은 무르익어가는 봄기운을 배경으로 물 오른 버드나무와 붉게 핀 복사꽃이 낙조가 드리운 강물에 그림처럼 비춰진 장면이다. 한말의 독립운동가였던 임규(林圭) 또한 선유봉의 풍광을 시에 담았다.

선유봉 찾으려고 일엽편주 올라타니  
한 몸이 편안하긴 천상루에 앉은 것 같구나.  
날아갈 듯한 이 마음 하늘을 나는 기분일세  
앞이 환히 트이니 길 잘못 들 염려 없다.  
강마을 나고 들고 여기저기 보이는데  
물결이 조용하니 흘러가는 줄 모른다.  
사공은 연달아 양화도만 말하는 것이  
바로 앞이 신선 노는 곳인 줄을 그대 정녕 모르리.<sup>9)</sup>

과거, 시인 문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여의도 셋강에서 선유도에 이르는 한강의 풍광들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선유봉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한강 제방과 여의도 비행장을 만들기 위한 채석의 목적으로 훼손되기 시작하여 그 뒤 양화대교와 정수장 등 각종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나. 황포돛배 : 조선팔도를 잇는 아름다운 배

선유봉은 경강(京江, 한양에 인접한 한강)에서 강화도를 거쳐 황해로 드나드는 수상 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해 있었다. 이런 지리적 요인 때문에 선유봉을 비롯한 영등포 일대 한강변 풍광은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황해로부터 수백리 물길을 거슬러 경강에 들어오던 선원과 상인들 또한 한강에 비친 달과 선유봉의 풍경을 즐겼다. “에엥 차아. 저 달 뜨자 배 띄우니 … 선유봉이 비치누나. 선유봉을 지나치니 장유들 술집에 불만 켜네. 마포에다 배를 대고 고사 술을 올려주면 한 잔 두 잔 먹어보세. 헤엥 차아.”(강화군 내가면 황청리에서 채록된 뱃노래) 조선시대의 경강은 전국의 물자를 실어 나르는 효율적인 수상 교통의 근간이었고 그 중에서도 도성에 인접한 한강 북안(北岸)의 서호 주변 나루터들이 가장 번성했다.

서호의 짙은 화장 서시와도 같아 (西湖濃抹如西施)  
복숭아꽃 가랑비에 푸르름이 짙어가네. (桃花細雨生綠澹)

9) 임규의 이 시는 제목이 따로 없기에 시의 소재 중 하나인 '선유봉'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장대로 배 저어 돌아오니 물의 반은 부용꽃 (盪槳歸來水半蓉)  
날은 저무는데 죽지랑을 노래하는 이 하나 없네. (日暮無人歌竹枝)  
삼산은 김오의 머리에 있어 아득한데 (三山隱隱金鬮頭)  
한양 땅에도 분명코 앵무주가 있다네. (漢陽歷歷鸚鵡洲)  
머뭇거리며 보아도 황학은 보이지 않고 (夷猶不見一黃鶴)  
문득 한 쌍의 흰 갈매기만 훨훨 날아온다. (飛來忽有雙白鷗)<sup>10)</sup>

서거정의 「마포범주(麻浦泛舟)」는 ‘한도십영’(漢都十詠) 중에서 제7경을 이루고 있는 시편이다. 이 시에서 서거정은 서호에서도 가장 봄볕던 마포에서 배를 타고 돌아본 한강의 풍경과 감회를 그리고 있다. 서명응의 ‘서호십영’(西湖十詠) 중의 한 편인 「마포운범」(麻浦雲帆)도 마포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경우이지만 색다른 것은 ‘구름처럼 떠 있는 돛단배’를 포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2〉 1890년대 한강의 황포돛배(영등포구 포토소설역사관)



해상교통의 핵심 수단인 선박은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젓는 방식에서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돛이 필요했고 돛을 설치한 배를 돛단배(帆船)라 불렀다. 19세기 초 증기기관 동력선이 등장할 때까지 돛을 단 범선의 시대는 오래 계속되었다. 한강 일대의 풍경과 뱃놀이의 흥취를 노래한 「한강수타령」에도 그런 돛단배가 나온다.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 타고서 에루화 뱃놀이 가잔다/한강수야 네가 말

10) 서거정, 「마포범주(麻浦泛舟)」, 「한도십영」(漢都十詠) 중 제7경)



을 하려마 눈물 둔 영웅이 몇몇 줄을 지은고/멀리 뵈는 관악산 웅장도 하고 돛단배 두서넛 에루화 한가도 하다/ (중략) /노들의 버들은 해마다 푸르는데 한강을 지키던 입 지금은 어디 계신가/양구 화천 흐르는 물 소양정을 감돌아 양수리를 거쳐서 노들로 흘러만 가누나/잔잔한 물결에 노 젓는 저 사공 만단 시름 잊고서 배만 저어 가누나<sup>11)</sup>

마포 나무에 구름처럼 모여든 돛배들은 조선시대의 경강을 바쁘게 오르내리면서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날랐다. 한강 이북의 나무들과 함께 영등포는 경강 수상 교통로의 길목에 있는 포구마을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 조선시대의 영등포는 한강 이남에서 서강, 마포, 용산 쪽으로 건너가는 대안(對岸)의 나무터로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황포돛대가 사라진 곳에 한강유람선이 오가고 있으나, 한때 조선팔도를 이어주며 수많은 시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던 황포돛배는 여전히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할만하다.

### 3. 철도 개설과 영등포

개항 이후 구한말의 영등포 지역에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사건은 경인선과 경부선 철도 부설이다. 경인 철도는 제물포와 노량진을 연결하는 33.2km 노선으로 1877년 3월에 착공하여 2년 뒤인 1899년 9월 개통되었다. 영등포역은 경인선의 개통과 함께 운영을 시작했다. 경인선 개통을 이어서 경부선 철도가 1901년 8월에 착공되었고, 서울과 부산을 잇는 전구간이 개통된 것은 1905년 1월의 일이다.

1900년 7월에 한강철교가 완공되어 철도 노선이 남대문역까지 연장되자 영등포는 한강 이남에서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 잡았다. 1917년 10월에는 한강 인도교가 개통되어 한강의 남과 북은 육로로도 이어졌다. 영등포는 한강 이북과 이남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의 통과 지점으로서 많은 물자와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는 장소가 되었다. 경인경부 철도 개통 이후 영등포 일대 지역은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형태를 서서히 갖추기 시작한다. 이로부터 영등포는 영동과 잠실 등의 강남 지역이 개발되기 이전인 1970년대 초반까지 한강 이남의 중심이자 거점 도시로 기능한다.

근대사회의 건설은 철도라는 교통기관의 발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철도와 기차라는 교통 수단은 시간과 거리를 압축하고 상호연결함으로써 종래의 시공간 관념에 대한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철도가 가져온 사회·정치·경제·문화적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철도는 인간과 물자를 대규모로 더 빨리 수송하고, 새로운 정보와 사상을 신속하게 전달확산시킴으로써 사회의 전부분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11) 민요 「한강수 타령」, 『한국민속예술사전』, 국립민속박물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노선은 인천 제물포역과 서울 노량진역을 잇는 경인선 철도였다.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어 운영을 시작한 것은 1899년의 9월의 일이었다. 철도가 개통되기 이전까지 조선사회의 주요 교통 수단으로는 돛단배와 수레, 가마, 말 등이 이용되고 있었다. 이 무렵 철도와 함께 전차(電車)도 도입되었는데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기 한 해 전인 1898년 12월 서대문에서 청량리를 잇는 1단계 공사가 완공되었다. 물론, 단거리의 승객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전차는 대규모의 승객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철도와 비교될 수 없다. 황석영의 『철도원 삼대』에는 경인선 개통 뒤에 기차라는 신문물에 대한 당대 민중의 경험을 생생하게 말해주는 장면이 등장한다.

민씨가 어째서 자기 별호에 십장이 붙었는지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야 원래 조선 사람 태만이 그러하듯 농사꾼이었네. 밭 두마지기에 논이 여섯마지기로 그만 하면 식구가 부지런히 농사지어 밥먹구 살 만했지. (중략) 내가 스무살에 저 사람 만나 늦장가를 들어 좀 살 만해지니까 철도가 들어온다구 그래. 인천서 노량진 내왕하는 기차를 보러 수십리 길을 걸어 영등포역에 가보았다네. 나야 배포가 있어서 기차를 첩보구 놀라기만 하구선 곧 진정을 했네만, 함께 갔던 동네 사람은 겁을 집어 먹구 소달구지 수레바퀴 밑으로 대가리를 디밀고 나오질 못했어. 꺾꺾. 김을 잔뜩 내뿜으면서 칙칙폭폭 우르르 하면서 시키면 췌덩어리가 벼락치듯기 달려드는데 그런 괴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그러구 나서 좀 있다가 서울서 부산까지 기차 철로를 놓는다구 그래. 서울서 압록강 끝에 의주까지 철로를 놓는다고도 하구.”<sup>12)</sup>

여기서 기차 구경을 나선 민씨 일행이 찾아간 곳은 영등포역이다. 경인 철도가 완공되고 경부 철도가 곧 착공되는 시점에서 영등포역과 일대는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바뀌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경인선 철도 개통에 이어,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이 개통된 것은 1905년 1월의 일이다. 경부선 개통 삼년 뒤 1908년 신문관(新文館)에서 나온 장편 연행차가 「경부철도기」는 경부선 철도가 출발하는 남대문역에서부터 종착역인 부산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거쳐 가는 여러 역들을 열거하면서 그 고장의 풍물과 인정, 사실들을 서술해나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소리에/남대문을 등지고 떠나가서/빨리 부는 바람의 형세같으니/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 (중략) /조조양양 흐르는 한강물소리/아직까지 귀속에 처져있거늘/어느 틈에 영등포 이르러서는/인천차와 부산차 서로 갈리네.<sup>13)</sup>

12) 황석영, 『철도원 삼대』, 창비, 2020, 49~50면.

〈사진3〉 경부철도가 '광고'((소년) 2호, 1908)



국토지리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창작되었다고 하는 최남선의 「경부철도가」는 당대의 시점에서 철도와 기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부철도가」에서 우렁차고 날쌌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기차의 힘은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가능하게 만든 원천이다. 남대문에서 출발한 경부선 기차는 용산, 노량진을 지나 경인경부 철도의 교차점인 영등포에 도착한다. 인용한 「경부철도가」의 전반부에서 영등포가 "인천차와 부산차 서로 갈리"네라고 서술되고 있듯이 철도개통 이후의 영등포 지역은 한강 이남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철도교통의 중요한 거점 장소로 인식되고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연약한 마음이 자연 상하여 흐르는 눈물을 씻고 또 씻는 사이에 벌써 인력거를 덜컹 놓는데 남대문 정거장에서 요령소리가 덜렁덜렁 나며 붉은 모자 쓴 사람이, "후상, 후상, 후상 오이데마생까?"

하고 외치는 소리가 장마 속 논골에 땀방울이 뚝뚝 하니, 이때는 하오 십시 십오분 부산 급행차 떠나는 때라. 인력거에서 급히 내려 동경까지 가는 연락차 표를 사 가지고 이등 열차로 오르면, 호각소리가 '호르르'하며 기관차에서 '파 푸 파 푸'하고 남대문이 점점 멀어지니, 앞길의 운산(雲山)은 창창하고 차 뒤에 연하는 막막하더라.

그 빠른 차가 밤새도록 가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부산에 도착하니, 안방에서 대문 밖도 자세히 모르고 지내던 정임이는 처음 이렇게 멀리 온 터이라.<sup>13)</sup>

13) 최남선, 「경부철도가」, 신문관, 1908.

14) 우한용 외 편, 『한국 대표 신소설(下)』, 도서출판 빛샘, 2000, 41면.

철도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경험을 누구보다 일찍 감지한 이는 신소설 작가들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종래의 구조설이 담아내지 못한 세계상을 현실 속에서 구현했다. 최찬식의 「추월색(秋月色)」(회동서관, 1912)에서 남대문역에서 출발한 '정임'이라는 여주인공은 이튿날 부산에 도착하여 동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간다. 「추월색」에서 기차라는 교통수단은 과거에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꿈같은 세계를 현실로 만들어놓았다.

기차라는 신문물은 돛단배와 수레, 인력거 시대가 가지고 있던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세계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나갔다. 철도와 기차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수단이었고, 일본을 건너 미국과 유럽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었다. 이광수의 『무정(無情)』(1917)은 근대 여명기의 조선사회에서 철도라는 문명의 이기(利器)가 초래했던 변화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저 노인도 갑오 전 한창 서슬이 푸르렀을 적에는 평양 강산이 다 나를 위하여 있고, 천하 미인이 다 나를 위하여 있다고 생각하였으리라. 그러나 갑오년 을밀대 대포 한 방에 그가 꿈꾸던 태평시대는 어느덧 깨어지고 마치 캄캄한 밤에 번개가 번쩍하는 모양으로 새 시대가 돌아왔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이 되고 세상은 그가 알지도 못하던, 또는 보지도 못하던 젊은 사람의 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는 철도를 모르고 전신과 전화를 모르고 더구나 잠행정이나 수뢰정을 알 리가 없다.<sup>15)</sup>

『무정』의 인텔리 주인공 '형식'에게 철도는 문명의 표상이다. 그에게 있어 기차의 쇠바퀴를 돌리는 증기기관의 소음은 '문명의 소리'이다. 그 소리는 '나라'를 잘되게 만들고 '찬란한 문명'을 낳는 원천으로 찬양되고 있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장편소설로 일컬어지는 이광수의 『무정』은 철도와 기차를 제외하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작품이다. 형식과 영채의 운명이 엇갈리는 것도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기차간이었고, 평양 가던 영채가 병욱을 만나 회생하는 것도 기차간이었다. 물론, 일본 유학길의 영채와 병욱이 형식·선형 부부와 우연하게 재회하는 것도 부산가는 기차간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삼랑진역에서의 수재민을 위한 연주회도 기차여행 때문에 비롯된 사건이었다.

『추월색』의 '정임'이도 『무정』의 '형식'과 '영채'도 기차를 타고 한강철교를 건너 노량진을 지나 영등포역에 도착했을 것이다. 남대문역에서 출발한 기차는 한강을 건너 영등포에 도착할 때 서울을 떠났다는 느낌과 함께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된다. 반대로, 염상섭의 『만세전』에 등장하는 일본 유학생 주인공은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시흥을 지나 영등포에 접근하는 것을 보고 서울에 돌아왔다는 실감을 하게 된다. 경인경부 철

15) 이광수, 『무정』, 동아출판사, 1995, 195~196면.

도개통 이후의 영등포는 그렇게 서울을 한강 이남과 이북으로 나누는 동시에 이어주는 특별한 장소로 변화하면서 자신의 지역적 정체성을 형성해나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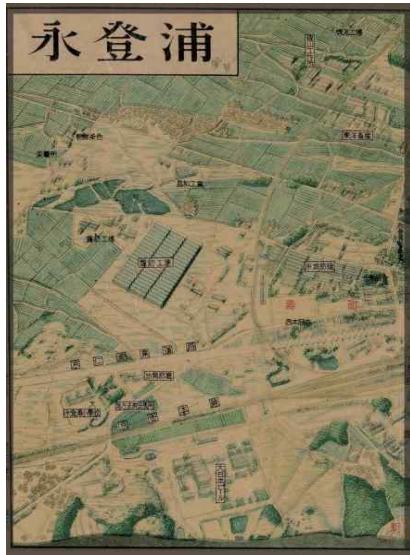
#### 4. 일제강점하의 영등포

경인선과 경부선 철동 개통 이후, 교통과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변모하면서 영등포 지역에는 영등포역과 공장의 높은 굴뚝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전통적인 농촌 사회가 해체됨으로써 많은 농민들과 빈민들이 영등포 일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소통과 교류가 자유롭고, 크고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특수성 때문에 영등포 지역은 식민지 시기 내내 독립운동과 노동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한다.

##### 가. 전통 사회의 해체와 영등포 지역의 형성

영등포구 도시 주거지의 발달은 시흥군 북면 영등포리 시절에서 시작되었다. 대한제국 말기에 경인선과 경부선 철도가 지역을 경유함으로써 영등포역 부근을 중심으로 차츰 시가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도6> 경성부 부대관(영등포 부분, 1936)



개항 이후 경인선 철도가 부설되면서 영등포 지역이 새로운 땅으로 변모해나가는 양상은 황석영의 『철도원 삼대』에 잘 묘사되어있다.

이백만은 견습공 시절에 영등포역 부근에서 밥을 대어 먹었다. 현장의 함바를 오래 해오던 부부가 하는 밥집이었다. 영등포는 수신히 정도가 채소를 기르며 살던 가난한 농촌이었지만 십년 전부터 경부선 공사가 착수되면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했다.<sup>16)</sup>

영등포가 경인선과 경부선이 갈리는 지점이 되자 역 주변에 우체국 전보지사나 전 화지소 같은 버젓한 신식 건물이 들어섰다. 그리고 역전 광장 건너편에는 일본인 거주지역이 생겨났다. 이들 번화가를 지나서 영등포시장이 생겼고 네거리 사방으로 가게와 밥집이며 주막집 봉긋방도 자리를 잡았다.<sup>17)</sup>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기 이전의 영등포 일대는, 인접한 안양과 관악 쪽에서 흘러내리는 하천을 끼고 있는 한강 남안의 모래밭과 채소밭이 펼쳐져 있는 한적한 농촌이었다. 경인선 개통과 함께 경부선 공사가 착공되자 영등포는 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이후 영등포는 물류와 생산의 기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경인선 객차의 종점은 한강철교가 개통된 뒤에도 수년간 노량진이었다가 용산이 되었다. 그러나 경부선과 경인선의 접점이 영등포였으며 수신히 군데의 공장이 들어서며 산업화물이 늘어났고 경부선의 지선으로 출발한 호남선까지 지나게 되니 영등포역은 자연스럽게 남경성역이 되었다. 화물창고가 수신히로 늘어났으며 역 구내의 철로도 여러 선으로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 공장지대와 철도공작장으로 연결된 철도가 영등포 시내를 관통하게 된 지 오래되었다. 경인선은 인천이 항만인데다 산업화로 공장지대가 늘어나 경부선의 끝이었던 부산에 다음가는 주요 화물 운송로였다. 낮에는 물론이고 특히 객차가 운행되지 않는 야간에는 밤새도록 화물차가 왕래했다.<sup>18)</sup>

철도의 개통과 함께 맥주·방직·주정공장 등이 영등포에 자리를 잡으면서 영등포의 주거와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1920년 영등포리가 영등포면으로 승격되는 것도 문래동 도림동 대방동 상도동 등지에 일본인들의 영단(營團) 주택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영등포는 서울을 지근의 거리에 둔 강변 도시로 발전을 거듭했다. 1931년 일

16) 황석영, 『철도원 삼대』, 창비, 2020, 45면.

17) 황석영, 『철도원 삼대』, 창비, 2020, 45면.

18) 황석영, 『철도원 삼대』, 창비, 2020, 185면.

제의 대륙침략 정책으로 '만주사변'이 발발한 뒤에도 이 지역의 일본인 소유 공장들은 군수품을 생산하여 호황을 누리면서 일제 말기까지 영등포 일대는 계속 발전해나갔다.

영등포 정거장을 지나 고추말고개를 넘어 신길정으로 가노라면 신작로 양편에 새로 생겨난 거리가 나왔다. 수십년 전에 일본인들의 거류지와 상권이 생기고 마루보 시공장이 들어서면서 일대는 시장 인근에 못지않은 밥집 주점 숙박업소 등이 생겨났다. 행인과 출입객 거개가 일본인들의 상업활동이나 공장일을 바라고 모여든 노동자들이었다. 일터가 있는 노동자건 가두노동을 하는 날뽕팔이건 모두들 이곳 어딘가에 등을 기대고 살았다. 값싼 일셋방에서 밥집까지 짧은 사내들이 버글거렸다. 정거장 뒤편의 철로변을 따라서 형성된 수많은 골목에는 임시로 지어진 가가에 사창가가 모여 있었고, 역전의 버젓한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유곽에서는 일본 창녀들이 영업을 했다.<sup>19)</sup>

영등포에 정거장이 생기자 신작로도 개설되고 시장과 각종 편의 시설들이 거리를 형성하게 된다. 영등포역 인근의 사창가와 유곽들도 이 무렵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인들은 영등포에 대거 진출하여 지역의 상권을 지배했다. 1917년 일본인이 많이 살았던 영등포리와 당산리, 양평리의 3개리는 합쳐져서 '영등포면'으로 승격하고, 1931년 영등포면은 '영등포읍'이 되었다. 1930년대 접어들면서 총독부에서는 늘어나는 경성부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도시정비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1936년 구역 확장에 나서게 된 총독부에서는 시흥군 관할이었던 영등포읍과 북면, 동면을 경성부에 편입시키고 용산, 동부, 영등포에 출장소를 개설한다. 일제강점하의 경성은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산업화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과 함께 사회를 전시체제로 재편한 뒤,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군국주의의 단계로 나아갔다. 영등포 지역은 개항 이후 일제에 의해 수행된 왜곡된 근대화 과정의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 나. 영등포역과 민중의 삶

영등포는 민중이 일군 땅이었다. 여름철만 되면 범람이 잦았던 모래밭 진창에 채소를 가꾸었던 농민들의 땅에 가난한 조선인 인부들이 철도 부설공사 현장을 찾아 몰려들었다. 영등포를 일구고 만들어내 최초의 주인공은 부자나 지식계층이 아니라 혈벗은 민중들이었다.

“그래도 영등포 있을 때가 나왔지. 영등포 있을 때 당신은 장국밥 집에 있고 나는

19) 황석영, 『철도원 삼대』, 창비, 2020, 140~141면.

뜨내기로 날마다 여기저기 일하러 다니구. 그래도 당신은 못 살겠다구 하지 않았수. 그래서 당신은 도적질까지 하지 아니 하였소. 남의 집의 장국밥 두 그릇을 갖다 주고 그 집 주인이 십원 짜리를 바꿔오라고 주면서 사환 녀석을 따라 보내는 것을 길에서 속이고 그대는 도망을 해 서울로 올라오지 아니 하였소. 그래 나를 그걸 가지고 또 불러 올리니 무슨 시원한 것이 있소. 당신은 벌이라고 나가면 버는 날은 당신이나 먹고 들어오고 못 버는 날은 그저 들어오니 그래도 사람은 먹어야 살지 나만 나무라지 마시우. 나도 사람이라우. 하고 싶어서 하우. 당신 몰래해서 당신 보는데 잠시라도 먹고 지내는 것이 나는 날 줄로 생각하우. 그러는 것이우.”

그는 말뚱말뚱한 정신으로 생각해 보았다. 자기가 수원 어느 촌에서 머슴 노릇을 하다가 저 여자를 얻어-그 뒤에 남의 집 소작인 노릇을 해 그리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서울이나 오면 나올까해서 우선 영등포에서 얼마동안 지내봐 그러다 살 수가 없어서 자기도 하고 싶지 아니한 양식에 꺼리키는 짓을 하고 서울로 도망을 해와 그래도 살 수가 없어 나중엔 자기의 아내를 서방질까지 시키게 돼. 그렇다. 그는 자기의 아내가 서방질하게 된 것은 자기가 시킨 것같이 생각이 되었다.<sup>20)</sup>

최승일의 「죄」는 뜨내기 삶을 살아가는 부부의 이야기인데 가난 때문에 아내가 할 수 없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슬픈 사연이 등장한다. 이 이야기 속에서 남편은 원래 수원에서 머슴을 살고 있었다. 남편은 머슴일을 그만 두고 아내와 함께 살길을 찾아 상경하지만 가난한 그들이 강 건너 서울 시내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장 생계를 위한 일거리를 찾아야 하는 그들이 머물 수밖에 없었던 곳은 바로 영등포이다. 그들 부부가 '여기저기 일하러 다니'던 곳과 '장국밥'집이 있던 장소는 막 조성되기 시작한 역전 일대의 거리였을 것이다.

그 중 구석진 의자애가 향이(香伊)는 조그마니 앉아서 자기는 또 한 번 일을 그릇치지 않았나 뉘우쳐 본다.

그러나 역시 자기 앞에는 그 길밖에 없는 듯 싶었고 '그이'의 앞을 떠나 자기에게는 아무런 바람도 있을 듯싶지 않았다.

20년 동안 제 자신 그렇게도 아껴왔든 자기의 깨끗한 마음과 또 몸은 처음이요 또 마지막으로 그이에게 바쳤든 것이 아니냐. 사랑이 엷어졌다 사랑이 식었다 암만 그러더라도 자기의 몸 위에 불행이 있을 때 그래도 그것을 걱정하여 주고 가없어 하여 주고 또 슬퍼해 줄 사람은 오직 '그이' 하나뿐이 아닌 것이 아니냐.

역시 '그이'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문득 개기름이 지르르 흐르는 '새 주인'의 얼굴이 눈 앞에 떠올랐다. 그것은 그를 제법 불안하게 하여 준다. 그러나 이렇게 된 이상에는 이대로 나가는 수밖에 아무

20) 최승일, 「죄」, 〈별건곤〉 제7호, 1927.7. 165~167면.

도리가 없었고 오직 '그이'의 사랑만이 부활한다면 모든 것은 그들 앞에서 결코 큰 문제일 수 없을 것이다.

영등포역(永登浦驛)을 열 한 점 40분에 떠난 열차는 15분 지나 경성역(京城驛)에 닿았다.<sup>21)</sup>

박태원의 「길은 어둡고」의 주인공 '항이'는 일찍 부모를 여윈 뒤에 기생이 된 몸이다. 그는 가게 주인이 바뀌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상황에 처하지만 사랑하는 남자를 잊지 못해 결국 발길을 돌리고 만다. 여기서 그가 경성으로 되돌아가는 기차를 타는 장소가 영등포역이다. 번민에 휩싸인 '항이'가 앉아있는 영등포역 대합실의 분위기는 여행객들의 부산함같은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서글픔같은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다. 한강 이남에서 경성으로 드나드는 길목에 위치한 영등포, 그 중에서도 영등포역은 당대 민중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장소이다.

몇 번이나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며 편치 못한 잠을 잔듯 만듯하고 눈을 떠보니까 긴긴밤도 흐지부지 흰히 밝았다. 으스스하기에 난로 앞으로 가서 불을 쪼이며 옆사 람더러 물어 보니 시흥(始興)에서 떠났다 한다.

인제는 서울도 다 왔구나!고 생각하니, 그래도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영등포를 지나서 한강 철교를 건널 때에는 대리석으로 은구를 놓은 듯한, 사람 그림자라고는 없는 빙판을 바라보고 무심코 기지개를 켜며 두 다리를 쭉 뻗었다.<sup>22)</sup>

염상섭의 『만세전(萬歲前)』(《시대일보》(1924.4.6.~6.1)은 3.1운동 이전 일제강점 초기의 조선 사회현실을 지식인 주인공의 눈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야기는 동경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청년 유학생의 귀국 행로를 따라 전개되고 있다. 그의 상경 행로는 「추월색」의 '정입'이나 『무정』의 '형식'과 '영채'가 밟아갔던 철도길과 동일한 것이지만 여행이 주는 기대와 설레임을 거의 상실한 채 일상적인 현실의 한 장면으로 대두하고 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문명의 이기로 다가왔던 철도와 기차가 일상화된 교통수단이 된 국면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영등포는 서울에 속하지 못하고, 한강 이북의 서울로 들어가는 문턱-문지방'같은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 공장지대 건설과 사회운동

영등포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 초기의 일이다. 조선피혁공업

(1911),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용산공작소(1919)가 먼저 세워졌고 이후 경성방직(1923)과 조선맥주, 조선기린맥주, 관동기계제작소(1936)같은 주요한 산업 시설들이 당산동과 도림리를 비롯한 영등포 일대에 세워지면서 영등포는 공업도시로서의 성격을 띠기 시작한다.

영등포역 일대는 경인정부 철도의 분기점이 되면서 근대적인 성격을 띤 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일본인들의 상권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대가 들어섰고 공업화는 미약한 상황이었다. 1911년 조선피혁을 시발점으로 1923년 경성방직이 들어서는 시점에서 영등포에 큰공장은 소수에 불과했다. 1930년대 들어서서 총독부에서 전략적으로 조선의 공업화를 추진하자 일본 자본이 유입되면서 영등포 일대는 공업지대로 서서히 변모해가기 시작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맥주회사, 제분회사 등이 이 무렵 영등포에 들어섰고, 경성방직 주변에 대규모 섬유공장들도 건설되었다. 일제강점기 후반에는 군수용 금속기계 공장이 늘어났다. 공장노동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총독부에서는 문래동에 영단주택 단지를 조성하기도 했다.

해방 후에도 영등포에서 인천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인공업지대는 초기 산업화를 이끌었다. 1899년 경인선 노선에 위치했던 영등포역이 영업을 시작했을 무렵, 시흥군 북면에 속했던 영등포 일대는 여름이 되면 자주 범람하는 안양천 하류의 저지대 한촌이었다. 그 무렵의 영등포는 다른 철도변 신흥 도시들과 비슷하게, 일본인 상인 중심의 상가들이 역 주변에 들어서는 정도에 그쳤다.

일본 자본에 의해 세워진 영등포 최초의 대규모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조선피혁주식회사는 당산리에 자리를 잡고 질 좋은 쇠가죽으로 군수용 피혁제품을 생산했다. 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용산공작소 영등포공장(영등포공장창)도 규모가 큰 공장이었다. 경성방직주식회사는 영등포역 인근에 자리잡았다. 조선인 자본으로 세워진 최초의 주식회사이자 해방 이후 증권시장에 상장된 1호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경성방직의 설립은 조선인들이 주주로 참여한 민족자본에 의한 것이었다. '태극성'이라는 상표로 면직물을 생산한 경성방직은 조선인들이 자부심과 애착을 느끼던 민족기업이었다.

조선피혁, 영등포공장창, 경성방직이 들어선 1920년대 영등포 일대 모습은 크게 달라졌지만 본격적인 공업화는 1930년대 접어들어 이루어졌다. 총독부에서 조선의 공업 진흥책을 계획하면서 영등포를 후보지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교통의 편리성과 저렴한 토지대, 풍부한 용수 등의 장점은 일본의 독점 자본을 영등포로 끌어들였다. 1934년에는 대일본맥주가 영등포역 뒤편 서쪽에, 기린맥주가 영등포역 뒤편 동쪽에 들어왔다. 1936년에는 종연방직이, 1937년에는 동양방직이 영등포에 공장을 건립했다. 대일본방직도 1939년 당산동 조선피혁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제분회사인 일청제분주식회사도 1936년 경성방직과 종연방직 인근에 공장을 세웠다.

영등포 일대는 1930년대 중반 경성부에 편입되면서, 본격적으로 공업화가 진행된 다. 방직과 음식료품 등을 생산하던 경공업 중심에서 일본의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금

21) 박태원, 「길은 어둡고」, 〈개벽〉 제4호, 1935.3. 49~50면.

22) 염상섭, 『만세전』, 동아출판사, 1995, 641~642면.

속·기계류 생산공장이 들어옴으로써 본격적인 공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후반 무렵, 인천에서 부평과 부천을 거쳐 영등포에 이르는 경인로는 주변에 산재해 있는 공장지대를 연결시켰다. 일제강점기의 영등포 지역은 식민 지근대성의 관철 국면 속에서 이루어진 공업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그는 왜 영등포에 활동가들의 여러 선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이철에게 말해주었다.

이 지역은 각종 공장이 삼십여개나 밀집해 있으며 노동자들도 이만여명이고 자유 노동자가 합치면 수만명에 가까운 산업지대였다. 노동자들은 거의 토착 원주민이 드물고 거의가 전국 각지에서 일을 찾아온 사람들이었다.<sup>23)</sup>

영등포는 서울에서 운동의 중심이자 지하조직의 근거지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활동가들에게 좋은 도피처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철도를 따라 이어진 서해안의 가장 큰 항구 인천을 불과 한나절 안에 내왕할 수 있었고, 그곳 역시 부두 하역장과 공장이 밀집해 있어서 노동자가 수만명이었다. 영등포는 사실 인천을 배후 기지로 두고 경성을 앞에 둔 전선이었다.<sup>24)</sup>

일제강점기의 영등포는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과 더불어 역 주변에서 잡다한 일을 도맡아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었다.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영등포 지역은 일제강점기 시기 내내 독립운동과 노동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다. 황석영의 『철도원 삼대』에는 일제강점기 영등포를 중심으로 한 '주의자'와 '활동가'들의 사회운동 이야기가 자세하게 서술되어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는 이재유나 박헌영같은 실존인물도 등장한다.

이재유의 경우, 황석영의 작품에서 중요한 인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재유는 M.I와의 일원으로 일본총국에서 활동하다가 국내로 돌아온 인물이다. 『철도원 삼대』에는 그가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해 전위 조직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체포되고 극적으로 도주하여 경성제국대학 교수 미야게 시가노스게가 제공해준 집에 은신하게 되는 일명 '이재유사건'<sup>25)</sup>의 전말이 소설적 상상력의 힘을 빌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임화 또한 영등포에 대한 기억을 자신의 시에 담았다.

감이 붉은 시골 가을이/아득히 푸른 하늘에 놀 같은/미결사의 가을 해가 밤보다도

23) 황석영, 『철도원 삼대』, 창비, 2020, 167면.

24) 황석영, 『철도원 삼대』, 창비, 2020, 167면.

25) 서대숙,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이론과 실천, 1989, 178~179면.

길다.///갔다 오고, 왔다가 가고,/한 간 좁은 방 벽은 두터워./높은 들창 가에/하늘은 어린애처럼 찰라거리는 바다//나의 생각과 궁리하던 이것저것을,/다 너의 물결 위에 실어./구름이 흐르는 곳으로 띄워 볼까!//동해 바닷가에 작은 촌은,/어머니가 있는 내 고향이고,/한강물이 승열대는/영등포 붉은 언덕은./목숨을 바쳤던 나의 전장.///오늘도 연기는/구름보다 높고,/누구이고 청년이 몇,/너무나 좁은 하늘을/넓은 희망의 눈동자 속 깊이/호수처럼 담으리라.///벌리는 팔이 아무리 좁아도./오오! 하늘보다 너른 나의 바다.<sup>26)</sup>

임화의 「하늘」이 발표된 1936년의 시점은 일제가 대륙 진출을 위해 전쟁준비를 본격화하는 단계였다. 영등포에 큰 공장들이 서서히 들어서면서 일대의 노동자들 또한 증가하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의 서기장을 지내기도 했던 임화가 영등포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이 시의 진술을 받아들인다면, 지난 어느 시절 그가 조직운동의 기지 중 한 곳이었던 영등포에서 나름의 활동을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영등포 붉은 언덕은, 목숨을 바쳤던 나의 전장'이라는 구절은 임화를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영등포에서 활동했던 투쟁적 지식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

임화의 아내이자 동지였으며 작가였던 지하련은 해방 직후의 영등포를 배경으로 한 단편소설 「도정(道程)」(문학, 1946.8)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어이없이 웃었으나,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니었다. 필로 보나 노동자의 진지한 투쟁은 실로 이제부터라 할 것이었다. 지도자가 맥없이 노동자를 이상화한다거나 그 경제적 이익을 옹호해야 된다고 해서, 그들의 원시적 요구의 비위만을 맞추어 준다는 것은, 노동자 자신의 투쟁력을 상실케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칫하면 앞으로 일하기 무척 힘들리다.”

물론 이야기는 이 이상 더 계속되지 않았으나 석재는 청년의 부탁이 아니라도 날이 밝으면 영등포로 나가 볼 작정이었던 것이다.

곧장 신길정으로 가는 삼가람 길에서, 먼저 서울엘 들러 오겠다는 청년과 그는 나뉘었다.<sup>27)</sup>

드디어 그는 전후를 잃고 저도 모를 소리를 정신없이 중얼거렸다.

“나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소시민(小市民)’과 싸우자. 싸움이 끝나는 날 나는 죽고, 나는 다시 탄생할 것이다. …… 나는 지금 영등포로 간다. 그렇다! 나의 묘지가

26) 임화, 「하늘」, 〈신인문학〉, 1936.8.

27) 김기진·박영희·엄홍섭·지하련, 『붉은 쥐/사냥개/승어/사십 년/도정 外』, 동아출판사, 1995, 426면.

이곳이라면 나의 고향도 이곳이 될 것이다.”

별안간 헛헛증이 나도록 전차가 느리다.

그는 환히 뚫어진 영등포로 가는 대한길을 두팔개를 치고 뛰고 싶은 충동에 가만히 눈을 감으며 쉼대에 기대어 섰다.<sup>28)</sup>

「도정」은 ‘석재’라는 지식인 주인공이 갑자기 찾아온 해방의 충격 속에서 당이 재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등하던 중에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이다. 중요한 것은 영등포가 자신의 묘지이자 고향이라고 말하는 석재의 다짐이 그러한 것처럼 해방 이후의 영등포도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운동의 중요한 기지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등포는 여러 가지 계열의 지식인, 운동가, 활동가들이 모여들어 서민 노동자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꿈을 꾸는 장소였다. 이런 진보적이고 헌신적인 지식인 활동가의 이야기를 다루는 문학의 전통은 이후, 영등포에서부터 인천에 걸쳐 있는 경인산업지대를 배경으로 한 도시빈민문학, 변혁소설, 노동(해방)문학의 대두 과정으로 면면히 이어지게 된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조선은 해방을 맞이했지만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1945년 9월부터 이후 3년에 걸쳐 군정을 실시했다. 군정이 끝난 뒤, 1945년 8월을 맞아 남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다. 해방 후 영등포에서는 일본인들이 떠나고 공장이 잠시 멈추기도 했지만 혼란이 수습되자 곧 공업지역으로서의 면모를 회복하게 된다.

## 5. 6.25전쟁과 전후 영등포

1950년 유월 이십오일 발생한 한국전쟁은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1953년 휴전상태에 들어갔다. 전쟁의 참화로 서울 전지역이 파괴되었고, 영등포 지역도 전화(戰禍)를 피해갈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납치 행방불명되고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영등포 관내 공장 이백 이십 삼개소 중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은 불과 십여 개소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sup>29)</sup> 한국전쟁 시기에 영등포 지역은 피난민이 머무는 임시 거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이민들을 유입했다.

### 가. 피난민과 한강 도강

6.25전쟁 발발 삼일 뒤인 1950년 유월 이십 팔일 새벽 두 시 삼십 분, 한강 인도교와 다른 철교들이 후퇴하는 국군에 의해 폭파되었다. 이 사건은 그때까지 강을 건너

지 못하고 한강 이북에 잔류한 병사들과 피난민들에게 커다란 재앙이 되고 말았다. 당시의 피난민들과 잔류 병사들은 적당한 장소에서 한강을 맨몸으로 건너야만 한다는 절박함에 직면했다. 영등포의 대안(對岸)도 그런 도강처 중의 하나였다.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할 때까지 우리 가족은 피난을 못 했다. 인민군이 침입해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아버지의 권유로 혼자서나마 피난길을 떠났다. 집이 원효로라 마포 근처에서 배 한 척에 매달렸다. 노인인 뱃사공은 아무 말도 묻지 않고 나를 실은 배를 움직여 노를 젓기 시작했다. 한강 북편쯤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마포 쪽에서 총성이 들려 왔다. 나를 향해 쏘는 인민군의 총소리였다. 노인은 침착하게 배를 그냥 저었다. 나는 정신없이 엎드렸다. 배가 한강 건너편에 닿았을 때 쏘살같이 뛰어내려 모래사장에 엎드렸다. 총성이 끝났을 때야 정신을 차리고 영등포 쪽으로 달렸다. 영등포로 달려가며 나는 가족도 모르게 죽을 뻔했다고 생각했다. 만약 죽었다고 하면 강 하나의 사이를 두고도 가족들은 내 시체를 절대로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아내는 내 죽음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과부가 될 것이며 자식들은 영원한 고아가 될 것이다. 나는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절대로 살아야 한다.<sup>30)</sup>

박영준의 「파풍(破風)」(《현대문학》, 1969.3)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해있다.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 한강을 건너는 도강행위는 목숨을 건 도박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달려간 쪽은 영등포였다. 영등포는 도강처였을 뿐만 아니라 남하하는 피난민이 거쳐가면서 머물렀던 장소였다. 서울 수복 이후에는 도강증이 없이 한강을 건널 수 없었던 상황에서 영등포는 많은 피난민들이 집결하는 장소였다.

황석영의 『철도원 삼대』에는 전후 영등포 시가지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다.

영등포역에 내렸을 때 폭격에 맞아 타다 남은 기둥만 서 있는 역사의 폐허가 보였고 폼의 시멘트가 군데군데 파이고 잡초가 자라나 있었다.<sup>31)</sup>

셋말에서는 언제나 저녁 무렵이 활기가 차오르는 시간이었다. 주변의 수십개 공장에서 쏟아져나온 노동자들과 철도공작창과 피혁제지공장 등에서 퇴근하는 사람들의 자전거가 길을 메웠다.<sup>32)</sup>

전쟁 직후에는 거의 모든 공장이 파괴되어 한산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예전의 큰

28) 김기진·박영희·엄홍섭·지하련, 『붉은 쥐/사냥개/승어/사십 년/도정 外』, 동아출판사, 1995, 432면.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永登浦 近代 100年史』, 2011, 18면.

30) 이무영·박영준·정비석, 『농민/모범 경작생/성황당 外』, 동아출판사, 1995, 403~404쪽.

31) 황석영, 『철도원 삼대』, 창비, 2020, 26면

32) 황석영, 『철도원 삼대』, 창비, 2020, 33~34면

공장들은 복구를 마쳤고 새로운 공장들도 빈터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반파된 제분공장이나 벽돌공장 등지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급을 나누어 수업을 받았고, 그것은 학교가 복구될 때까지 계속되었다.<sup>33)</sup>

전후의 영등포 일대는 폐허로 변해있었다. 전쟁 중의 영등포는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했던 탓에 피아 간의 격심한 전투와 폭격에 의해 영등포 역사를 비롯한 공장들은 파괴를 면치 못했다.

#### 나. 전후 복구와 영등포시장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흐르자 영등포는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도시 기능을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황석영의 동화 『모랫말 아이들』에는 전쟁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영등포의 삶의 풍경이 그려져 있다. “날씨가 풀린 어느 포근한 오후에 밤섬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시내를 건너다가 그만 얼음이 꺼져서 빠”<sup>34)</sup>지기도 하고, “쌍성루 위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쌍성루에서 마주 뚫린 길 모퉁이에는 작은 이발소와 숯집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언제나 쌀겨와 먼지와 뿌얇게 날아다니는 방앗간이 있었다.”<sup>35)</sup> 일상으로 돌아간 전후 영등포의 변화 중의 하나는 새로운 이주민들이었다.

전쟁통에 고아가 되어 이곳저곳을 떠돌다 늘그막에는 영등포 청과물 시장에서 용달차를 몰던 아버지와 고향이 황해도라고는 해도 일곱 살 때 한 번 먹어봤다는 황해도 왕만두 말고는 고향에 대한 그 어떤 기억도, 향수도 갖고 있지 못한 엄마와, 명절이면 텅 비어버리는 장바닥의 을씨년스러움 속에서 돌아갈 고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가를 곱씹으며 보냈던 나의 유년이란 것은, 굳건한 뿌리 앞에서는, 뼈대 있는 한 집안의 족보 앞에서는 나약하다 못해 비루한 것이었다.<sup>36)</sup>

장바닥에서 자라난 아이는 돌아갈 고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를 낳아 길러준 부모들은 고향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다. 이명랑의 『삼오식당』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부모는 전쟁통에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영등포 시장에 자리를 잡고 살아온 경우이다. 전후의 영등포는 전쟁통에 유입된 많은 떠돌이 피난민들이 정착한 장소 중의 하나였고 그들 중의 많은 수가 영등포 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황석영의 『철도원 삼대』에도 영등

33) 황석영, 『철도원 삼대』, 창비, 2020, 34면

34) 황석영, 『모랫말 아이들』, 문학동네, 2013, 15면.

35) 황석영, 『모랫말 아이들』, 문학동네, 2013, 15면.

36) 이명랑, 『삼오식당』, 은행나무, 2013, 20면.

포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는 이북 피난민 박씨가 나온다.

공비토벌에 공을 세웠다는 황해도 출신 경찰 박충경의 아우가 다른 이북 피난민들 처럼 영등포에 흘러들어왔고, 아우 박씨는 미군부대와 기독교 구호단체에서 흘러나온 군복과 헌옷들을 염색하고 손질해서 시장에 내어 큰돈을 벌었다. 광복 외에는 변변히 입을 옷감이 없던 시절에 군복이며 구제품 옷가지들은 요긴하고 귀한 물건이었다.<sup>37)</sup>

#### 6. 산업화 시대의 영등포

1963년 시행된 법률에 의해 서울은 인구 5백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영등포구는 관할 구역을 크게 확장한다. 1968년에는 여의도 개발과 함께 강남 개발붐이 일어났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급격한 유입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영등포구 주변 지역들이 신설된 관악구와 강서구, 구로구에 편입된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걸쳐있는 한국의 고도성장 과정을 ‘한강변의 기적’이라고 부를 때 그 영광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영등포이다.

##### 가. 영등포 산업지대의 변화와 발전

1960년대 이후 공업지대로서 영등포의 산업을 주도한 것은 섬유와 식품 부문이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섬유회사 중방, 경방과 함께 크라운 맥주(현재, 하이트)와 동양맥주, 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삼강 등의 기업이 영등포에서 꾸준히 공장을 가동했다. 1960년대 후반, 본격화하는 경제개발계획이 실행되자 낙후된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나날이 심화되어갔다. 당시의 영등포도 상경 노동자의 터전 중 하나였다. 이 무렵의 영등포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

회색빛 시멘트 담과 언제나 언덕처럼 쌓여 있던 석탄더미들, 기관차의 화물차량들과 그 뒤를 쥐새끼처럼 쫓아가며 코크스를 줍던 아이들, 국방색 작업복에 똑같이 하얀 칼라를 내놓은 차림의 방직공장 처녀들, 검은 무명팬티만 입고 벌거벗은 채 뛰다니며 쌍소리를 하던 영단주택의 노동자의 아이들, 공장 폐수가 끊임없이 흘러가던 학교 가는 길, 죽은 쥐, 버려진 제웅, 그리고 실직한 노동자들이 몰려 살던 부서진 화물차들, 그 양지쪽에서 맨발로 헤바라기하던 아이들, 미군부대가 보이는 여의도 일대의 쓰레깃더미, 튼튼이 잡초가 보이고 깡통 사이로 피어나던 오랑캐꽃과 민들레, 냉이꽃 같은 작은 들꽃들, 이런 것들이 영등포에서의 내 어린 날의 기억이다.<sup>38)</sup>

37) 황석영, 『철도원 삼대』, 창비, 2020, 29면



이 장면은 황석영의 「열애」(〈창작과비평〉, 1988)에 등장하는 사십대 중반의 화자가 어린시절을 보낸 영등포를 회상하는 대목이다. 석탄터미와 방직공장, 공장폐수, 부서진 화물차에 대한 묘사에서 우리는 공장지대 영등포의 을씨년스럽고 황폐한 풍경을 떠올릴 수 있다.

누우런 연기 내뿜는 굴뚝들이 보인다./오랜만에 친구 찾아가는 길/갑자기 옛날 생각이 난다/사변통 폭격맞아 뼈대만 남은/피흘리는 커다란 짐승 같은 벽돌건물/하얗게 찢어진 하늘들이 떠오른다./저 자동차 수리공장 뒤켠 시궁창 위/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은 돌무덤들/떼지어 사람들이 죽어가던 자리/그 옆을 지금 내가 지나간다/먼지투성이 바람 한길로 몰아닥쳐/눈을 뜰 수 없구나 이제 머리 속에/웅거리는 머리 속에/바람이 지나간 뒤에도 남는 것/가야 할 곳에 대한 그리움/늦가을 영등포 길은 너무 쓸쓸해/오늘 거기 닿는다 한들/누구 하나 있을 것 같지 않고 내일/모래 그러다가 엄두조차 못낼 것 같아/친구 만나 소주 한잔 마실까/가자 기운을 내어 가자/타오르는 빨강게 타오르는/바람 한가운데를 구멍뚫는 모닥불<sup>38)</sup>

최민희의 시 「영등포 길」에서도 영등포는 황석영의 「열애」와 비슷한 양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오래 됐지만 영등포에는 여전히 폐허와 죽음에 대한 시간과 기억이 흐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삶의 모닥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다.

김용성의 『도둑일기』(〈현대문학〉, 1983.9~11)는 서울 서대문 일대를 배경으로 삼형제의 성장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그린 장편소설이다. 이야기는 고아처럼 버려진 세 어린 형제들이 어쩔 수 없이 도둑질에 손을 대는 성장 과정을 따라 전개되고 있다. 6·25전쟁통에 아버지가 전사하고 어머니마저 병사한 뒤 어린 삼형제는 도둑으로 커나간다. 어머니는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지만, 어린 형제들은 굶주림 앞에서 누구도 어머니의 뜻을 좇아갈 수 없었다.

그는 이윽고 내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더욱 의심을 살 것이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영등포 쪽에 나가서 조그만 방직공장에서 일을 했어. 하지만 이젠 그만두었어. 형도 곧 그만둘 거야. 별이가 신통치 않아서. 게다가 나는 몸이 더욱 허약해졌으니까.” 성수는 내 말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았다.

38)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외』, 동아출판사, 1995, 565면.  
39) 최민희, 「영등포 길」, 〈창작과비평〉, 1973.3.

“형은 너무 무리를 했나 봐.”

나는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며 한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sup>40)</sup>

그는 나를 사위로 삼아 최근에 영등포에서 조업을 시작한 메리야스 공장을 장차 넘겨 주기라도 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내가 기대를 품을 만한 암시를 주어 왔었다. 나는 그런 암시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그것은 암시로 끝났다. 그리고 내가 그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진정한 나의 이유에 대해서도 끝내 비밀로 남았다. 연주는 나의 비밀을 그녀의 부모에게나 형에게 결코 발설하지 않았던 것이다.<sup>41)</sup>

영등포의 방직공장과 메리야스공장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1960년대 이후 섬유와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해나가는 영등포 산업지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나. 도시빈민과 매춘여성 소재 문학

도시는 근현대 문학의 주요한 소재이자 배경이다. 도시를 소재나 배경으로 삼고 있는 도시문학은 일제에 의해 수행된 식민지근대화 과정에서 등장했다. 한국의 도시문학은 1930년대 식민도시가 형태를 갖추게 되는 시점부터 1970년대에 이르러 성행하게 된다. 1970년대 문학사에서 도시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작가는 박완서이다. 박완서는 「엄마의 말뚝」, 「목마른 계절」, 「나목」에서부터 70년대 후반의 「도시의 흉년」에 이르기까지 서울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그 속에 깃들여 살고 있는 도시인의 내면과 도시의 생태를 형상화하고 있다. 시 분야에서는 최승호의 「밥숟갈을 닦았다」, 박용하의 「그러나 서울에 비가 내린다」 등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자신의 본모습을 상실하고 병적으로 왜곡되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문명비판적 의미를 담고 있다.

장르를 초월하여 근대 이후에 등장한 도시는 문학작품에서 대체로 비판적으로 다루어진다. 도시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는 근대문명 자체의 물질주의적 성격에서 비롯되고 있다. 물질만능의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토대로 한 근대 산업사회의 성격이 소외와 절망, 폭력과 허위에 지배되는 부정적 이미지의 도시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문학이 다루는 주제는 도시적 외관과 도시인의 내면적 황폐화 양상을 비롯하여 근대화 과정에 들어선 도시의 생태 등에 대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도시의 생태와 관련하여 도시빈민과 매춘녀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

40) 김용성·유재용, 『도둑일기/관계 외』, 동아출판사, 1995, 152면.  
41) 김용성·유재용, 『도둑일기/관계 외』, 동아출판사, 1995, 244면.

다.

1960년대는 대규모의 도시민민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시행과 산업화 추진 이후, 1960년 이백 사십 사만 명에 불과했던 서울 인구는 1980년대 초반에 이르는 과정에서 천만 명에 도달하게 되었다. 20여년 만에 인구가 네 배 정도 폭증한 것이다. 1970년대 중반, 한국의 총 인구 중에서 도시 거주 인구수 비율은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 무렵 인구의 도시집중화는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離村向都)가 핵심 요인이었고, 이들 이촌향도민들은 도시 주변부를 형성하는 도시민민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나날이 증가하는 도시민민의 주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도시민민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산업화가 본격도에 오르는 1970~1980년대를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대두하고 있다. 1970년대 문학사에서 황석영의 「객지」, 윤홍길의 「아홉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조세희의 연작소설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을 대표작으로 거론할 수 있다. 풍자시집 김지하의 『오적』과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에서도 도시민민의 삶이 소재로 등장한다.

1970년대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의 한 편인 조세희의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은 도시민민의 삶을 다루고 있다. 12편의 단편이 연결되어있는 연작소설(1975~1978) 형태의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은 도시민민의 궁핍한 삶과 비극적 운명을 형상화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작품은 서사 기법이나 문체가 종래의 소설 문법과 달라 낯설기도 했지만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고 지금도 널리 읽히고 있다.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은 난장이를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 겪는 시련과 파멸의 이야기이다. 이 연작소설에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벼랑으로 몰린 하층민의 비참한 생활상과 노동환경, 생활주거, 노동운동 등의 문제가 다양한 비유와 상징적인 표현에 의해 암시되고 있다. 착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면 달나라로 떠나야 한다는 지섭의 말에 동조하고 굴뚝에 올라가 몸을 던지는 난장이 아버지의 모습은 이 작품이 가진 주제와 상징적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이야기의 주요 공간적 배경은 서울의 번두리 공장지대로 설정되어있다. 이야기의 전편(前篇)에서 난장이 가족의 거주지 주조인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은 그들이 처한 지옥같은 현실을 역설적으로 대변하는 가상 지명으로 제시되어있다.

“아저씨, 댁은 어디세요?”

“저 건너 벽돌 공장 밑입니다.”

난장이가 말했다.

“여기서도 벽돌 공장의 굴뚝이 보입니다. 그 밑으로 번호를 크게 써붙인 집들이 탁 지닥지 붙어 있어요. 집 앞엔 방죽이 있구요. 언제 한번 와보세요. 동네는 지저분해

도 재미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발육이 나빠 유난히 작아 보이지만 귀엽습니다. 저희 여편네는 돼지를 방죽으로 몰아넣어 목욕을 시키죠.”<sup>42)</sup>

시내는 많은 구름이 기복을 이루며, 동서로 뻗은 중앙부의 구름에 의하여 시가지는 남북으로 나뉜다. 공장지대는 북쪽이다. 수없이 솟은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오르고, 공장 안에서는 기계들이 돌아간다.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일한다. 죽은 난장이의 아들딸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그곳 공기 속에는 유독가스와 매연, 그리고 분진이 섞여 있다. 모든 공장이 제품 생산량에 비례하는 흑갈색, 황갈색의 폐수, 폐유를 하천으로 토해 낸다. 상류에서 나온 공장폐수는 다른 공장 용수로 다시 쓰이고, 다시 토해져 흘러 내려가다 바다로 들어간다. 은강 내항은 썩은 바다로 괴어 있다. 공장 주변의 생물체는 서서히 죽어 가고 있다.<sup>43)</sup>

난장이 가족의 ‘행복동’ 집은 하천이 흐르고 있는 공장 지대에 있다. 강제철거와 아버지의 죽음 뒤에 난장이 가족이 생계를 위해 이주한 ‘은강시’는 바다와 가까운 공장지대로 설정되어있다.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에 그려진 행복동과 은강시의 공장지대 이미지는 안양천에 접해있는 영등포 공장지대나 경인산업지대를 쉽게 떠올리게 만든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사회적 상황의 문학적 반영은 도시민민 이야기와 더불어 술집이나 윤락업소에서 웃음과 몸을 파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타났다. 1970년대 후반 무렵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 현기영의 「아내와 개오동」에는 ‘진숙’이라는 여성이 등장한다.

그런데 석규가 정작 충격받은 것은 삼 일 동안의 취재를 대충 끝내고 서울로 돌아와서였다. 그는 옥자로부터 상경하거든 제 친구 진숙을 꼭 찾아가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었다. 진숙은 두 달 전 안양에서 영등포 영일동으로 이사간 뒤 딱 한 번 편지 오고 여태 소식이 없는데 혹시 병이 악화된 거나 아닌지 걱정이라는 것이었다.

옥자가 보여 준 그 마지막 편지에는 안양 보세공장의 고된 봉제일로 병이 심해진 것 같아, 직장을 영등포 영일동으로 옮겼노라고 써어 있었다. (중략) 석규는 주소가 적힌 쪽지를 들고 영등포구 영일동으로 김진숙을 찾아갔다. 알고 보니 영일동은 세상이 다 아는 영등포 역전 적선지대였다. 실마 그릴 리야 없겠지 하고 불길한 생각을 억누르며 찾아갔으나 예감은 그대로 적중되고 말았다. 의상실에 나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중략) 석규는 결국 혼자서 갈증으로 타는 목을 소주로 축이고 영등포 역전으로 뒤통뒤통 진숙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가던 것이었

42) 조세희,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이성과함, 2010, 53면.

43) 조세희,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이성과함, 2010, 185~186면.

다. 물론 진숙의 전직장인 보세공장의 실태를 취재하는 목적이 아니었다. 옥자 얘기도 꺼내지 않았다. 다만 단도직입적으로 그 짓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오래 오래 진숙의 단골이 되고 싶었다.44)

이 이야기 속에서 기자인 '석규'는 아내의 친구 진숙을 탐문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녀가 의상실에 취직한 것이 아니라 영등포 역전의 흥등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970~80년대 영등포 역전의 흥등가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경 처녀들이 몸을 의탁하고 살아갔던 비운의 장소였다. 이청의 「영등포에 뜨는 달」에는 스물 여덟 살 먹은 처녀 '정순'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녀의 집은 “영등포 역 뒤편에 고립된 섬처럼 가려진 판자집 동네”45)인데 가족들에게는 양장점에 나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관에서 몸을 파는 일을 한다. 이 이야기 속에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작가의 관점인데 주인공의 모습을 가난한 부모를 대신하여 가장의 역할을 하는 헌신적인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아내와 개오동」의 '진숙'이나 「영등포에 뜨는 달」의 '정순'이 보여주는 삶과 운명은,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1972~73)의 주인공 '경아'나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1973)의 주인공 '영자'의 그것과도 같은 것이다. '와이에이치무역 여공사건' 등 당시의 굵직한 정치적 사건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김원우의 「집승의 시간」은 1970년대 후반 무렵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이다.

그가 '시그널'의 정기공연물의 연출을 처음으로 맡고 그 쫓파티를 했을 때, 우리는 영등포 역전의 사창가에서 창녀와 동침을 했다. (중략) 우리는 서울역 광장을 지나 서부역 쪽으로 건너가는 육교 위를 걸어가고 있었지 싶다. 양이의 서울 집이 여의도에 있는 어느 아파트였으므로 버스를 타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만리동 고갯마루에 빼곡히 차 있는 집들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정면으로 받아 내고 있었고, 도대체 언제쯤 무더위가 한풀 꺾여 해거름녘이 닥칠지 알 수가 없었다. (중략) 솔직하게 털어놓겠다. 양이와 나는 그 거추장스러운 성적 긴장을 몇 번인가 풀었다. 여관에서, 그리고 여의도에 있던 양이네 아파트에서(양이 어머니는 일 주일에 이삼 일은 마석 우리에 있는 최화백의 화실에서 지냈고, 그럴 때면 일찍이 딸 자식 하나를 얻고 소박데기가 된 먼 일가붙이가 낮 동안만 파출부 노릇을 했다). 그때마다 우리는 거의 가학적이고, 미친 듯이, 거침없이 서로의 벌거숭이 몸뚱아리를 탐했고, 종내에는 너무 섬세해진 우리의 성감대와 성충동을 깡그리 불태우느라고 악을 썼다.46)

44) 현기영, 「아내와 개오동」, 〈작단〉, 1979.

45) 이청, 「영등포에 뜨는 달」, 〈소설문학〉, 1984, 152면.

46) 김원우, 「집승의 시간」, 〈문예중앙〉, 1985.3.

이 작품은 화자인 주인공 '나'(이기중)라는 인물이 자신이 겪었던 1970년대 말 암울했던 사회적 상황을 회상적으로 서술하는 액자형 구조의 이야기로 되어있다. 변변한 수입이 없이 어렵게 생활하는 주인공은 장 사장의 경제적 후원을 받아 공연작을 정한다. 그러나 테러리스트가 등장하는 이 번역극은 공연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극단에서는 공연을 강행한다. 극단 시그널의 봄 정기공연이 이틀 만에 중단되자 주인공은 허망감을 느낀다. 가을 공연도 워크숍 형식으로 끝낸 어느 날,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주인공은 먹던 밥을 토해 버리고 극단에 나간다. 거기서 동료들 만난 주인공은 함께 소주를 마시다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한다.

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 '기중'이 겪는 고통의 세월은 극단 시그널의 공연 불허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정치적 규제와 탄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주인공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좌절과 방황은 억압과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적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경우이다.

#### 다. 민주화 운동과 노동자 소재 문학

김원우의 「집승의 시간」에서 억압받는 개인의 욕망이라는 차원에 갇혀있던 이 에너지는 198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변혁을 꿈꾸는 공지영의 「동트는 새벽」(1988)과 방현석의 「새벽출정」(1989)으로 분출하고, 신경숙의 「외딴방」(1994~1995)으로 이어진다.

노동소설의 측면에서 이문열의 「구로아리랑」과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 사이에 신경숙의 「외딴방」을 놓는다면 그 경계선에 「동트는 새벽」으로 등단한 공지영이 놓일 수 있을 것이다. 영등포에서 인천에 이르는 경인산업단지의 역사 속에서 등장한 문학을 노동소설의 범주에서만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범주에서는 신경숙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야학이라든가 해방신학을 비롯하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대표되는 도시빈민의 문제들이 제대로 조명될 수 없다.

1970년대 이후 80년대 이르는 영등포는 경인로를 통해 인근의 산업지대와 연결되었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영등포산업선교회 활동 등 각종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터전이기도 했다. 또한 1970년대 무렵부터 전문 작가가 아닌 현장의 노동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인천 부평공단에서 일하던 노동자 유동우가 노동착취에 대항하는 투쟁을 수기 형식으로 기록한 「어느 돌맹이의 외침」(1977)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1970년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역사를 정리한 책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 자료들 가운데서도 노동자의 글을 발견할 수 있다.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성문밖교회'의 1984년 11월 11일자 주보에는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무기명의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

두 눈을 감고 태일 오빠를 생각한다. 그야말로 인간으로선 상상도 못할 밑바닥 생활을 몸소했던 오빠, 끊임 줄 모르고 하염없이 이어지는 가난의 굴레. 난 이 악순환에 대해 강한 저항을 느낀다.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의 내용들을 접했을 땐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동정의 눈물을 참지 못했다. 또 차갑게 세차게 내동댕이친 세상에 대한 분노도 한없이 밀려왔다. (중략)

지금 이 순간부터 깨어 일어나자. 단결하자. 그래서 한걸음으로 나가자. 사회악과 부조리에 대해 도전하며 인간의 권리를 찾아 평등의 세상을, 정의의 세상을 이를 그 날까지 투쟁하자.<sup>47)</sup>

시 분야의 경우, 김진경의 「영등포」와 김지하의 「지옥1」이 1970년대 영등포 모습과 노동자의 삶을 그리고 있다.

노을 속으로 여의도가 솟아오르고./강바닥에선 풀들이 집을 짓는다/저녁이면 강을 건너 돌아오는 사람들/그들의 목소리가 강바닥에서 곁곁 웃고//풀 위를 걷는 동안 사람들은/풀이 되어 돌아온다/흙 묻은 작업복을 툭툭 털며 사람들은/영등포의 심장으로 풀을 실어 나르고/밤이 되면 영등포는 풀의 도시가 된다//밤 강가에 와서 보라/이윽고 영등포가 몸을 일으켜 밤 강가로 오는 것을/와서는 물을 마시고/작은 풀잎 하나가 되어 곁곁 웃는다.//그 목소리./밤마다 우리의 닫혀진 문을 열고/우리의 잠속에서 꿈이 되고 있다.<sup>48)</sup>

김진경의 「영등포」에 그려진 ‘풀’은 새로운 생명을 담지하고 있는 민중들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등포의 참주인은 작업복을 입은 가난한 민중들이며 이들은 하나가 아니라 같은 꿈을 꾸는 거대한 공동체이다. 「영등포」는 1970년대 이후 민중이라는 새로운 집단주체의 등장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을 예감하게 만드는 시이다. 김지하의 「지옥1」은 1970년대 노동현장으로서의 영등포와 노동자의 형상을 시적인 언어를 빌어 생생하게 기록한 작품이다.

꿈꾸네/새를 꿈꾸네/새 되어 어디로나/날으는 꿈을 미쳐 꿈꾸네/기름투성이 공장바닥 거적대기에/녹슨 연장 되어 쓰레기 되어/잘린 손 감아쥐고 새를 꿈꾸네/찌그러져도 미쳐 눈 감고 꾸네/하얀 연이 되고 꽃피고 푸른 보리밭도 되고/미쳐 새가 되고 콩새가 되고/붉은 독촉장들이 수없이/새 되어 사라지고 가서 돌아오지도 않고/끝없이 알 수 없는 공장문 밖 어디로나 끝없이/체납에 정리실적 북명서/세입인별 징수부 영수증 명세서 집계표 고지서/내 손을 떠나 파랑새도 되고/까마귀도 되어 사라지고

가고 없고/돌아오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기름투성이 공장바닥 거적대기에/명청히 남은 갖스물/소화 20년제의,/아아 나는 낚아빠진/가와모도 반절기/찍어내고 찍어내고 잘리고 부러지고/헐떡거리며 지쳐 여위어 비틀거리며/녹슨 연장이 되어 찌그러져 미쳐 그래도/새를 꿈꾸며 잘린 손 감아쥐면/예쁜 색동이 되고/팔랑개비가 되고/고향집 벽에 붙은 빨간 딱지가 되고/꽃상여 되고/기어이 기어이/울음 우는 저 밤기차가 되고/꿈꾸네/새를 꿈꾸네/새 되어 어디로나/날으는 꿈을 미쳐 꿈꾸네/남진이 되어 남진이 되어/저 무대 위/저 사람들 위/저 빛나는 빛나는 조명등에 빛나는/저 트럼펫이 되어/외쳐보렴 목터져라 온 세상이 찢어져라 찢어져 없어져 사라져/호떡도 수제비도 잔업도 없는 무대 위에 남진이 되어 새되어/사라져가렴 손가락아 제기랄!/아무것도 아무것도/뒤에는 아무것도 추억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잘려 나간/내 갖스물 아/영화나 되어/낮도 밤도 없는 시키면 영등포/명청히 남은/소화 20년제의/아아 나는 낚아빠진 가와모도 반절기.<sup>49)</sup>

이 시는 영등포의 암울한 노동현장에서 소화 20년에 생산된 일제 기계에 의해 손가락을 잃은 스무 살 청년 직공을 소재로 삼고 있는 경우이다. 일제강점으로부터 민족이 해방이 된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은 참혹한 실정이고 노동자의 삶은 비참하다. 일제가 남긴 기계에 손가락을 잃어버린 청년은 ‘새’가 되는 꿈을 꾸고 있다. 이 세에 대한 꿈은 ‘자유’에 대한 갈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1970-80년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정신으로 고양된다.

#### 라. 여의도 개발의 역사와 문학

여의도는 1943년 6월 영등포가 구로 승격하면서 영등포 관할이 된 곳이다. 과거의 여의도는 한성부의 연희방에 속해 있었으며 말을 키우는 목마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여의도와 밤섬(栗島)은 고양군 용강면 여울리(汝栗里)에 속해 있다가 그 뒤 서부 출장소 관할의 여의도정에서 구제 실시와 함께 울도정과 여의도정으로 나누어지면서 울도정은 서대문구에, 여의도정은 영등포 소속이 되었다. 1970년대 이후, 영등포 지역의 커다란 변화를 이끈 것은 여의도와 한강 개발이었다. 김광섭의 「잡초들」은 1970년대, 개발이 시작될 무렵의 여의도 풍경을 그리고 있다.

아 밝은 태양 맑은 물/바람 센 여의도 강둑/말라서 흙이 갈라질세라/덮은 풀들이여/이름도 없는 잡초 처음엔 꽃인데/다시 한 번 꽃이 되고파라//가물에 논밭처럼/바닥이 드러난 강/얕은 줄 모르고/더듬더듬 건너는/무거운 철 교각(橋脚)//현재에서 미래로/아파트에 놀러/산도 가고 물도 갔다//화신(花信) 등진 저 아낙네들/지나간 고

47) 인명진, 『성문밖 사람들 이야기』, WCC한국준비위원회 대한기독교서회, 2013, 200면.

48) 김진경, 『갈문리의 아이들』, 청사, 1984, 136면.

49)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창작과비평사, 1982, 16~19면.

〈지도7〉 서울특별시 종합계획도(1977)



운 날을 삼키며/쑥을 캐는 눈시울이 따가워선가/가난이 얼굴 바닥에 탄다.<sup>50)</sup>

「잡초들」이라는 시가 그리고 있는 풍경 속에서, 꽃소식을 전해주던 과거의 여의도 시대는 끝나고 아파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의도 개발은 1967년 윤중제 공사에서 시작되었다. 제방 공사는 이듬해 6월 준공되었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되면서 여의도 개발공사는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국회의사당과 '5.16광장'이라 불렸던 광장, KBS방송국 등이 건설되고 마침내 63빌딩이 들어서면서 서울타워와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형성하게 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 기관과 대형 시설이 들어선 여의도는 '한국의 맨하튼'으로 변모했다. 1986년에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이 끝나 한강시민공원이 정비되고 여의도 일대에는 체육시설과 위락시설이 조성되었다.

그 어느 날 윤중제(輪中堤) 독길을 걷다가/길옆에서 달마상(達磨像) 꼴의 돌덩이를 만났다.//나는 그 뒤 산책 때마다 그 돌과/낮이 익어 말마져 나누게 되었는데/서로가 이 지구 속에 내던져져/어쩔 바를 모르는 신세타령도 하고/서로의 장단(長短)도 비교하며 위로도 하고/영원 속에서 더불어의 완성을 다짐도 했다./그러다 언젠가는 집으로 데리고 와서/서재 선반 위 달마목조상(達磨木彫像)과 함께/뜨개 받침까지

50) 김광섭, 「잡초들」, 『이산 김광섭 시전집』, 문학과지성사, 2005, 430면.

깔아 모셔 놓았는데//어쩔 일인가? 그 어느 때부터는./오래 산 여편네처럼 심드렁해져서/그저 막 생긴 돌덩이가 되고 만지라//오늘은 그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옛정과 그 감명을 되살리려고 하지만/내 번덕이 또 어떨는지 좀 부끄럽다.<sup>51)</sup>

윤중제(輪中堤)는 '강섬을 둘러쌓은 제방'을 뜻하는 일본어에서 온 말이다. 구상이라는 원로 시인은 그 독길을 따라 산책을 하면서 소박한 삶의 깨달음을 얻고 있다. 오랫동안 군 비행장으로 사용되어 온 모래밭으로 별다른 이용가치가 없었던 여의도는 그렇게 시인을 명상 속으로 이끄는 평화로운 일상적 삶의 터전으로 바뀌었다.

### 7. 오늘날의 영등포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영등포 지역은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따라 연립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증가하게 된다. 1998년에는 동양맥주 자리에 영등포 공원이 조성되었고 하이트맥주 터는 아파트 단지로 변모했다. 이로부터 서서히 영등포는 공장 굴뚝으로 상징되는 산업지대로서의 성격과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영등포는 인근 분구의 편입으로 인한 인구 감소세도 약화되면서 이후 안정기를 맞이하고 미래도시 건설을 꿈꾸는 단계에 들어간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언론의 중심지로 부상한 영등포 지역에는 대규모 유통시설이 늘어나게 되고, 한강시민공원을 비롯한 여의도공원과 영등포공원, 선유도공원 등을 오가는 이용객들이 증대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영등포는 유동인구 일백 오십 만을 자랑하는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영등포 지역의 미래는 아시아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중국 서해안과 연계한 경제벨트가 구축되어 나가면, 한강 남안에 위치한 영등포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치와 의미는 크게 증대될 것이다.

#### 가. 과거와 미래의 공존

1990년대 이후 도시재편기에 들어간 영등포구는 도시정비와 도시재생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15년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집창촌과 여관이 밀집되어있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997년 경기도 이천으로 옮겨간 OB맥주공장 자리에는 영등포공원이 조성되고 하이트맥주로 바뀐 대일본맥주 터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종연방적

51) 구상, 「어느 돌덩이」, 『구상문학총서』 제2권, 흥성사, 2004, 102~103면.

자리에는 방립방직 공장이 위치해 있다가 에이스 하이테크라는 첨단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섰다. 일체제분에서 대한제분으로 바뀌었던 대신제분 영등포공장은 충남 아산으로 옮겨간 뒤 2015년 영등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포함되어 현재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 중이다.

영등포의 왼편 뺨 문래동이어./그대로 몇 년이고 매연에 덮인/허전한 거리/은밀한 지붕의 일점/낮은 찻집은/늦은 손님을 오래 앉힌다./나직한 탁자 위에도/빠알간/영등포의 불빛/가난한 변두리의 사랑을 꽃피운다.<sup>52)</sup>

정공채의 「영등포기질」의 한 부분은 변화의 시대를 맞이한 영등포의 운명을 문래동 거리에서 마주하고 있다. 이 시 편에서 문래동으로 대변되는 영등포라는 도시의 성격은 ‘가난한 변두리의 사랑’을 품고 있는 장소로 대두하고 있다.

문래동의 공장 굴뚝 하나 둘 뿔뿔히 나가고/들어찬 저 죽림(竹林)의 빌딩 숲/한강 연안이 아니더라도/영등포에서는 주야로 비린내가 났다//경인선의 알짜쟁이들이 묻혀온 인천바람 소금바람/자갈치 시장에서 실어나른 부산바람 건어물바람/호남선 장돌뱅이들이 허리춤 전대에 찢러 가지고 온/굴비냄새 조개냄새//여영드응포/여영드응포/여기는 영등포역입니다./거룻배 한척 드나들지 않고 열차들의 포구/여러분의 영등포역입니다.<sup>53)</sup>

정공채와 마찬가지로, 구석봉의 시 「영등포역을 지나며」 전반부에서도 과거의 영등포 속으로 돌아가 추억을 불러내고 있다. 「영등포역을 지나며」에서는 영등포의 상징인 ‘한강’과 ‘영등포역’이 호명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두 개의 장소는 영등포 지역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골목은 낮은 신발들과 함께 깊어갔다/여기선 가난이 곱삭은 김치같이 맛있다/영등포엔 편의점이 없는데/국수집 간판이 골목 안쪽으로 숨었는데/가끔 선호하는 담배를 살 수 없는데/불편함이 마누라의 잔소리같이 정겹다//낮은 기계들이 수리공의 손에서 숨쉬고/영등포엔 버려지는 게 없다/늙은 아버지의 손에선 과일향이 난다/쓰레기가 오랜 친구같이 들락날락한다//골목 끝에 깊은 우물이 보인다면/거기가 영등포./가난하지만 맑게 흔들리는 얼굴이 있다.<sup>54)</sup>

신동호의 「영등포」는 오래되어 낡은 현재의 영등포에 대한 사랑을 가감없이 노래하고 있다. 영등포의 가난과 불편은 버릴 게 아니라 친구같은 것이다. 그것은 곁에서 늘 함께 하는 절친과 같은 존재이다. 정호승의 「영등포가 있는 골목」에서 영등포는 삶의 비의를 품고 있는 장소처럼 보인다.

영등포역 골목에 비 내린다/노란 우산을 쓰고/잠시 쉬었다 가라고 옷자락을 붙드는/늙은 창녀의 등 뒤에도 비가 내린다/행려병자를 위한 요셉병원 앞에는/끝끝내 인생을 술에 바친 사내들이 모여/또 술을 마시고/비 온 뒤 기어나온 달팽이들처럼/언제 밟혀 죽을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기어다닌다/영등포여/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고/병든 쓰레기통은 뒤지지 말아야 한다/검은 쓰레기봉지 속으로 기어들어가/홀로 웅크리고 울지 말아야 한다/오늘밤에는/저 백열등 불빛이 다정한 식당 한구석에서/나와 함께 가정식 백반을 들지 않겠느냐/혼자 있을수록 혼자 되는 것보다는/혼자 있을수록 함께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마음에 꽃힌 칼 한자루보다/마음에 꽃힌 꽃 한송이가 더 아파서/잠이 오지 않는다/도대체 예수는 어디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가/영등포에는 왜 기차만 떠났다/다시 돌아오는가<sup>55)</sup>

정호승의 시에 대해 박성우가 덧붙인 말은 이렇다. “영등포역. 아랫녘에 다녀올 일이 있을 때면 저도 종종 영등포역을 애용합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그곳에서 ‘끝끝내 인생을 술에 바친 사내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 취한 사내들에게 있어 영등포역이 삶의 ‘중착역’이 아닌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출발역’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sup>56)</sup> 이 시 속에서 영등포는, 떠나갔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희망을 기다리는 삶의 장소이다. 정호승의 또 한 편의 시 「가을 일기」에서도 시인은 영등포를 그리고 있다.

나는 어젯밤 예수의 아내와 함께 여관잠을 잤다/영등포시장 뒷골목 서울여관 숙박계에/내가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넣었을 때/창밖에는 가을비가 뿌렸다. 생맥주집 이층 서울교회의/네온사인 십자가가 더 붉게 보였다./낙엽과 사람들이 비에 젖으며 노래를 부르고/길 건너 쓰레기를 태우는 모닥불이 꺼져갔다./김밥 있어요 아저씨 오징어나 땅콩 있어요/가을비에 젖은 소년이 다가와 나에게 김밥을 팔았다/김밥을 먹으며 나는 경원극장에서 본 영화/벤허를 이야기했다. 비바람이 치면서/예수가 죽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다/그녀는 말없이 먹다 남은 김밥을 먹었다/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없는 나는/아무래도 예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 미안했다/어디선가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곧 차소리가 끊어지고 길은 길

52) 정공채, 「영등포기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永登浦 近代 100年史』, 2011, 82면.

53) 구석봉, 「영등포역을 지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永登浦 近代 100年史』, 2011, 82면.

54) 신동호, 「영등포」, 『장춘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 실천문학사, 2014.

55) 정호승, 「영등포가 있는 골목」, 『이 짧은 시간동안』, 창비, 2004.

56) 박성우, 「박성우의 PoemEssay」, 〈서울타임스〉, 2011.10.22. (<http://www.seoultimes.net>)

이 되었다/바퀴벌레 한 마리가 그녀가 벗어는 속치마 위로 기어갔다/가을에도 씨뿌리는 자가 보고 싶다는/그녀의 마른 젓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불을 켜다/빈 방을 찾는 남녀들의 어지러운 발소리가 들리고/그녀의 야윈 어깨가 가을 빗소리에 떨었다/예수는 조루증이 있어요 처음엔 고자인 줄 알았죠/뜨거운 내 손을 밀쳐내며 그녀는 속삭였다/피임을 해야 해요 인생은 짧으나 피임을 해야 해요/나는 여관 종업원을 불러 날이 새기 전에/우리는 피임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돌아오겠다던 종업원은 돌아오지 않고 귀뚜라미만 울었다/가을비에 떨면서 영등포경찰서로 끌려들어가는/사람들의 발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때/서울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57)

「가을 일기」는 영등포의 흥등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예수의 아내’로 호명되고 있는 여성은 거리의 몸 파는 여자로서 소외된 약자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영등포경찰서로 끌려들어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서울교회의 새벽 종소리’는 무언가를 일깨우는 소리이다. 여기에서 영등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비루한 현실 세계이면서 동시에 그런 삶에 대한 반성을 일깨우는 장소로 그려지고 있다.

영등포의 서민 노동자 거주지였던 문래동은 소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김한수의 「그대, 기차 타는 등 뒤에 남아」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영등포 노동자 모습을 보여준다.

형사님, 문래동에서 지낸 일 년 동안 제 생활은 적잖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봐야 씻밥 경력 삼 년이면 누구나 겪기 마련인 자질구레한 경험뿐이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저는 기술자 꼴을 갖추어나갔죠.

문래동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뭐니해도 그 바닥의 당연한 일원으로 행세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형들과 맞담배질을 하고, 대등한 자격으로 건배를 하고, 색시집에도 함께 가고, 견습공 시절에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들뿐이었죠. 견습공이 기술자들 앞에서 고개 뺏뺏이 들고 담배를 피우거나 술좌석에 넘죽넘죽 끼어들었다가는 싸가지 없는 새끼라며 당장에 오절이 날뻐터러, 그곳에서의 생활도 끝이죠. 한 번 눈 밖에 났다가는 이런저런 괴롭힘에 배겨나질 못하니까요.58)

영등포역의 서쪽 문래동은 일제강점기에는 도립동의 일부였다가 해방 이후 독립된 동이 된 곳이다. 문래동이라는 마을이름의 유래와 관련하여 ‘글(文)이 왔다(來)’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고려시대 후기 문익점과 관련되어 있다는 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문래동 동쪽에 방직회사가 다수 위치해있었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실 갖는 기구 ‘물

래’에서 문래동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정작 문래동의 이름을 널리 알린 것은 ‘철공업’이다. 1960년대부터 청계천의 철공소들이 공업지대인 영등포 서쪽으로 서서히 이전하여 이후에 철공소 밀집지역을 이루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문래동은 ‘철관으로 사람 빼고는 못 만드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다양한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철공소 단지로 유명했다. 뿐만 아니라 오백 채(혹은 이백 채)를 한꺼번에 지었다 하여 ‘오백채 마을’(혹은 ‘이백 채 마을’)로 불렸던 문래동 영단주택 단지는 일제강점기 영등포 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문래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만난 날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다. 사실 남편의 일자리 때문에 이사 가기로 한 Y지역에 대해 나는 아무런 기대가 없었다. 우리는 문래에서만큼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옛날부터 실 뽑고 천 만드는 방직공장이 많았다는 문래는 그 유래와 다르게 늘 칙칙하고 어두웠다. 방직공장은 주식회사라는 이름을 달고 커다란 빌딩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문래는 곳곳이 기름 냄새 나는 철공소들의 거리였다. 골목에 쌓인 눈은 한 번도 흰색인 적이 없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늦게 녹았다. 또 도시의 먼지란 먼지는 다 문래로 모여들어 쌓이는 것 같았다.(중략)

문래역과 영등포역 사이, 이주를 못하고 남아 있는 중소 철공소들이 드문드문 영업 중인 곳에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는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들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프레스 작업을 하거나 금형을 뜨는 공장들, 특수제작물을 만드는 용접 전문 철공소들은 그대로 있고 그 사이사이 버려진 작은 가게들이 울긋불긋 색을 입고 그림이 그려진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변했다. 공장 문짝에 그려진 화려한 꽃무늬, 담벼락에 그려진 캐리커는 이상하게도 칙칙한 문래와 잘 어울렸다. 이른 아침 시간에는 주로 근처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했다. 그러나 밤이 된다고 해서 예술가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그들은 그냥 혼자 작업실에 있거나 늦은 밤 작업을 끝내고 퇴근길에 한잔 마시러 나온 공장 사람들과 가끔 섞여 있을 뿐이었다.”59)

강영숙의 「문래에서」는 자신의 문래동 체험을 소설 형식으로 쓴 경우이다. 문래동 철강공단 거리에서는 1990년대 후반들어 중국산 부품이 밀려들어 오고, 철강 산업의 구조가 고도로 기계화되면서 폐업하는 철공소들이 늘어났다. 2000년대 들어 그 자리에 예술인들이 찾아들어 작업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문 단은 철공소나 철공소 위층의 유희공간들은 작업실로 사용하는데 적절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임대료가 저렴했다. 그리하여 문래동 ‘샤링 골목’을 중심으로 철공소 노동자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각자 자신의 일을 하는 공간이 자리잡게 되었다. ‘샤링’이란 영어 ‘셰어링(Shearing)’의 일본식 발음으로 철판을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는 작업을 가리키는 말

57)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현대문학북스, 2001, 96면.

58) 김한수, 『그대, 기차 타는 등 뒤에 남아』, 문학동네, 1998, 224면.

59) 강영숙, 「문래에서」, 『김유정문학상 수상작품집』, 은행나무, 2014, 182~183면.

이다. 2015년에는 서울문화재단이 문래동에 '문래동 창작촌'을 조성하면서 예술가 지원에 앞장섰다.

문래동 영단주택 단지는 문래동 철강공단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1941년 총독부가 영등포 공업지구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세운 공공 주택이다. 크기는 20평에서부터 8평 정도까지 다양하게 건축되었다.

물어 물어 찾아간 당산동 6가, 그럴 만한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성문밖교회 부근의 허름한 4층 건물, 3층과 4층을 빌려 쓰고 있는 그곳의 분위기는 역시 그랬다. 복도에고 사무실에도 사람들이 어수선하리만큼 많이들 서성거렸고, 사무용 집기며 유인물들이 여기저기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다. 낮익지 않은 얼굴의 출현에 민감해하는 눈빛들도 내게는 낯설지 않았다. 북아현동 마루터기, 그 아래층에 여자용 결혼예복 가게가 있는 피뢰뢰한 건물 3층엔가 4층엔가에 세들어 있을 때보다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고, 사람이 조금 더 많아진 듯싶은 것밖에는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보였다.<sup>60)</sup>

유순하에는 「외토리」에는 당산동이 등장한다. 오늘날의 영등포는 일제강점기보다 훨씬 넓다. 경성 남쪽 교외에 위치한 경공업지대에서 경성의 본격적 공업지구로 발전하고 해방 이후에는 국가의 산업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지역으로 커지면서 인접한 지역들을 편입시켜 나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과거의 공장들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현재의 영등포에서 공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대선제분 공장, 경성방직 자리, 문래동 철강공단, 문래동 영단주택 등 공업화 초기의 흔적과 유적이 산재해 있다. 영등포는 한국 근현대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의미 있는 장소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갈 테면 가, 돌아서 놓고//얼굴 위로/어깨 위로/구들장 웅퉁 무너져 내리는/밤이 취해/뒤척임도 더는 버거운 삼십 축 하늘 아래/납작한 뒤통수에 눌린/뒷골목 여인숙의 스펀지 베개.///쭈그러진 밤은 운다.<sup>61)</sup>

한상유의 「영등포의 밤」과 동포 시인 최종원의 시 「대림동 연가」는 새로운 간헐과 열림을 생각하게 만든다.

대림역 12번 출구는/고향정, 친구정이 서로 만나/이야기들이 소용돌이쳐 흩어지고 / 웃음이 사뭇쳐/만나는 곳//작은 골목길 따라 가노라면/쪽방에서 끓이는 마라탕이

발목을 잡고/떡메로 내리치는 하얀 찰떡이/군침을 꿀꺽 삼키게 한다.//보글보글 청국장애/소주 한 잔 곁들이면서/모국의 손맛을 한껏 느끼고/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가락애/고향의 그리움도 실어보낸다.//고향에 온 것처럼/마음이 평온해지는 대림동 거리/여기에 미처 적지 못한/술취한 씩씩들이/숨쉬고 살아 간다.//땀내음 속에 익어가는 저녁노을이/대림동의 밤을 붉게 달군다./떠나는 곳에서 아름다워지고/돌아오는 곳에서 새로워진다./에서 다 부르지 못할/정다운 나의 노래여!<sup>62)</sup>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영등포는 조선족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터전이 되기도 했다. 탈북민의 시선으로 영등포의 삶을 응시하는 소설로는 유영감의 소설집 『짜락눈』(1997)이 있다. 어찌보면 영등포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언어를 지녔던 적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서울에 속하기엔 변방에 머물고 있으며 서울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성을 지니기엔 서울에서 너무 가깝다. 게다가 영등포는 등지고 버틸만한 산이 거의 없는 평야지대다. 포구로서 발전하기에는 맞은 편인 마포에 비길 수 없었다.

조해진의 「완벽한 생애」는 인터넷 연재물로 홍콩, 영등포, 제주도가 배경으로 번갈아 등장하는 연애소설이다.

윤주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문장을 썼다. 마치 어젯밤에 쓰다 만 메모에 이어서 쓰듯이. 시징은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윤주의 방을 일주일 동안 예약한 홍콩 사람이었다. 예약이 확정된 뒤 원룸 건물의 정확한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윤주의 이메일을 받고 그가 보내온 답장에는 영등포의 어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언젠가 여행책자에서 영등포라는 지명은 영등국이 행해지던 포구에서 유래했다는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인상적이어서 나중에 서울에 가게 된다면 꼭 영등포에서 숙소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윤주, 이번에 그 기회가 생겨서 나는 정말 기쁘고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영등포에 살면서도 영등포의 어원을 알지 못했고 알려 한 적도 없는 윤주는 그 이메일이 흥미로웠다. 시징에게 메모를 쓴 건, 그가 단순한 게스트가 아니라 공간을 공유하면서 삶의 일부도 겹치게 된 친밀한 타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을 것이다. 자신의 방에 손님으로 온 그가 자필로 쓰인 메모를 읽으며 희미하게나마 웃게 되기를, 썩 괜찮은 숙소를 잡았다고 안심하기를 윤주는 바랐다.<sup>63)</sup>

장현도의 『트레이더』는 한국에서 뷰티크를 운영하며 선물이라는 주식의 일종을 통해 성과를 얻는 한국인 최도우와 천재 해커로서 세계 최고 철강 기업의 비밀조직원인 벤

60) 유순하, 「외토리」, 『빙어리 누에』, 문학과지성사, 1990, 11면.

61) 한상유, 『영등포의 밤』, 문학바탕, 2018, 58면.

62) 최종원, 「대림동 연가」.

63) 조해진, 「완벽한 생애」(1회), 2020.03.05.

<http://munhak3.com/section.php?thread=22r27>



힐러 사이의 대결을 그리고 있는 스틸러물이다. 영등포 일대의 변화가 거리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경우이다.

여의도에서 나고 자란 장현도는 2010년 5월 대한민국 서울, 영등포 오후 2시. 대한민국의 주요 역 앞 모습이 으레 그렇듯, 서울 중심에 위치한 영등포역 주변 역시 복잡하고 활기 가득찬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인 것처럼 서 있는 거대한 백화점, 무질서하게 뻗어있...(중략)

2010년 6월 대한민국 서울, 영등포 밤 9시. 유흥가 뒷골목에 자리 잡은 모텔 거리는 혼자 걷는 사람에게 외로움과 쓸쓸함을 주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이다. 술이 약간 오른 연인들, 혹은 다정하게 서로의 허리를 감싼 남녀들이 그들의 사랑을 확인할...(중략)

15일 뒤 대한민국 서울, 영등포 창문 밖으로 저 멀리 여의도 금융가가 보이는 한 커피점. 변화가마다 한 블록에 한 개씩 꼭 있는 이 테이크아웃 커피점에는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락거리고 있었다. 최도후는...(중략)

수많은 과일 가게들을 지나쳐, 대로변을 따라 영등포구청 앞의 당산공원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약 5분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당산공원을 열 바퀴 돌았다. 그렇게 모든 운동을 마치고 나서 어제와 똑같은 테이크아웃 커피점에, 그리고 의심을 받지...(중략)

2010년 7월 대한민국 서울, 영등포 시끌벅적한 하루가 지나가고 찾아온 새벽 2시. 어두운 가로등 아래 철물점 상가 골목길에는 이렇다 할 인기척도 없이 한여름밤의 탁한 안개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멀리서 지나다니는 차량 헤드라이트가 칙칙한 어둠...(중략)

남쪽 영등포에서 모텔에 들어갔다. 운이 좋게도 그의 방은 동남쪽 모서리에 위치해 있어서, 동쪽으로는 한국의 대표적인 금융가 여의도가, 남쪽으로는 그들이 내일 가야 할 영등포라는 지역이 한꺼번에 보였다. 시계를 보니 새벽1시가 조금 넘었다. 하지만 창밖...(중략)

같은 시각 대한민국 서울, 영등포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거지?” 최도후는 팔레스 모텔 카운터의 남자에게 기철게 물었다. 벌써 세 번째로 묻고 있는 것이었다.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기도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도후는 또 다시 손목시계를...(중략)

영등포에서 여자 암살자를 따돌린 그는 버스를 탄 채 약10분정도를 더 갔다. 목숨이 오가는 추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니 비로소 버스 안의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느껴졌고, 이어서 간신히 생각을 정리해나갈 수 있었다.<sup>64)</sup>

64) 장현도, 『트레이더』(1~2), 새움, 2012.

이경배의 「영등포 공원의 아침」은 산업화 시대에서 벗어나 번모를 거듭해온 현재의 영등포 모습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다. 영등포공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기린맥주와 후일 OB맥주 공장이 이전한 자리에 조성되었고 과거의 공장기계 소리를 대신하는 생명의 경이와 부활을 꿈꾸는 장소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개를 걷우고 일어서는/영등포 공원의 아침//부지런한 발걸음들은/별서부터 새벽 미명 속에/아직 잠깨지 못한 나무 사이를 돌며/조용한 숨소리로 눈뜨기를 재촉한다./그제서야 선잠에서 깨어난/나무, 꽃, 그리고 새들이/작은 언덕 위에서 기지개를 켜다./지상에서 사는 날 동안/우리 함께 몸 부비며 살아야 할/너와 나인 것들//살아서 아름다운 목숨들/한줄기 햇살을 받으며/공원의 아침은/푸른 부활로 제 몸을 밝힌다.<sup>65)</sup>

#### 나. 여의도의 약진

1990년대 이후 영등포 지역의 또 다른 변화는 여의도와 한강의 개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5.16광장’이라 불리던 넓은 광장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를 상징하는 국회의사당과 국영방송국 KBS가 건립되었고, 초고층의 63빌딩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여의도는 서울의 심볼로 여겨지는 랜드마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치열한 현안을 다투는 한국 정치의 현장이면서 금융의 허브로서 여의도 일대는 기존의 강남지역과 구별되는 중산층의 새로운 주거지로 관심을 끌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여의도는 동북아 금융의 허브이자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영등포구의 여의도는 최첨단 오피스, 호텔, 컨벤션, 상업시설로 구성된 IFC몰을 개장하는 등 첨단 국제금융도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고 있다.

여의도라는 공간의 역사는 목마장, 비행장, 관제데모, 시민들의 공간, 금융의 허브, 63빌딩 등이 상징하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만든다. 여기서, 여의도와 관련된 문학작품으로는 ‘밤섬’을 배경으로 한 이상의 수필 『서망울도』로부터 시작하여 여의도 개발과정을 다룬 김용운의 『안개꽃』,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의문의 사건을 추적해나가는 최제훈의 『단지 살인마』, 여의도 증권가를 소재로 쓴 이명의 시편들, 한강유람선이 등장하는 윤대녕의 소설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윤대녕의 『코카콜라 애인』에서는 ‘코카콜라 클럽’이란 카페가 위치한 곳으로 여의도가 등장한다.

65) 이경배, 「영등포 공원의 아침」, 영등포문인협회 사회집 『동지에서 날다』, 책나무, 2012, 43면.

아파트 정문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 망설이다 나는 여의도로 가는 버스에 훌쩍 올라탔다.

내가 왜 그곳에 찾아가야 할까 생각을 했을까. 사람이란 누군가에게 놓여나기 위해 상대를 찾아다니기도 하는 존재다. 그러니 버스에 이미 올라탄 바에야 그만 묻기로 하자. 다만 제 스스로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자.<sup>66)</sup>

윤대녕의 다른 작품 『옛날 영화를 보러갔다』와 『피에로들의 집』은 여의도가 이제 서울이라는 전체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장소이자 눈길을 끄는 경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택시를 잡아타고 여의도까지 거북이 걸음으로 오자 자정이 훨씬 지나 있었다. 아무튼 그녀가 사는 아파트 입구까지 와서 타고 온 차를 돌려 명륜동까지 가려는데 그녀가 집까지 데려다줘요, 하며 내 팔목을 잡아끌었다.<sup>67)</sup>

병원에서 나오면 정민과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미리 약속이나 한 듯 서울 곳곳을 몇 시간씩 쏘다녔다. 서대문, 남산타워, 여의도 한강공원, 상암 월드컵경기장, 국립중앙박물관, 예술의 전당, 올림픽공원 같은 데를 돌아서 밤늦게 성북동으로 돌아오곤 했다.<sup>68)</sup>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랜드마크는 서울타워겠지만, 서울을 떠나거나 들어올 때 사람들은 63빌딩을 바라본다. 한강철교 위에서 석양을 등지고 선 63빌딩의 풍경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 스쳐 지나가는 곳이다. 영등포는 이렇게 부끄러운 비밀처럼 감추어지거나 때로는 너무 거대하여 문학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주제였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영등포에서 잘 사는 곳인 여의도도, 가장 못사는 곳도, 혹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거주지가 된 곳도, 문학 속에서는 타자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잠시 이념적으로 조명된 적이 있으나 그들이 가진 언어로 자신을 표현해 보기도 전에 시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말았다.

안재인의 『금뱃지』(전 8권)는 여의도의 정치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판타지물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2012년에 출판된 신도현의 『여의도전쟁 판』도 비슷하다. b급문학으로서의 한계 속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태현의 추리소설 『적, 너는 나의 용기』와 이상우의 『여자대통령』(2013)도 여의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어린 시절 나 홀로만의 정취(情趣)는/마을 뒷산 시제(時祭)터 등성마루에 올라/멀찌막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나는 20년이나 여의도(汝矣島)살이를 하면서/올라가 즐길 산도 언덕도 없는지라/때마다 63빌딩 옥상엘 오른다.//무성한 풀숲과 관목(灌木)의 산실 대신/전망장이 달린 고속 엘리베이터 속에서/조무래기 친구들의 저마다의 함성으로/이 늙은이는 더욱 어지럽다.//옥상에 올라 전망대를 돌면서/탁 트인 사방을 멀찍이 바라볼 제/가까이서는 그렇듯 구경물 같은 한강도/은은한 빛으로 유유히 흐르고 있고/소풍객들의 술자리와 화투판이 벌어지고/소요와 소란이 끊임없는 선착장도/낭만적이기 짝이 없는 풍경과 풍정(風情)이다.//저 평풍처럼 둘러져 있는 북악과/가리개처럼 놓여 있는 남산 아래/즐비한 빌딩들과 총총 박힌 인가(人家)도/여기서는 액자 속 한 폭의 그림이요.//심지어 소음과 매연을 내지르며/거리와 다리 위를 질주하는 차량들과/저 난장관 국회의사당을 비롯해/콘크리트 숲처럼 늘어선 아파트들도/닭장 같은 그 속의 부조리한 삶을 감춘 채/모두 다 정연하고 평화롭고 아름답다.//스카이 라운지에 들러 차를 마시면서/거리라는 필터의 요술을 음미하노라니/초겨울의 어스름이 마취제처럼 퍼져온다./다시 전망대로 나가면 밤의 서울은/휘황찬란한 보석의 꽃밭이요, 행렬이다.//아마도 나는 근경(近景)의 환멸 속에서/원경(遠景)의 환상 쫓기를 즐기나 보다.<sup>69)</sup>

구상의 「원경(遠景)」은 여의도에서 20년 동안 살고 있는 시인의 소회를 그리고 있는 경우이다. 이 시 속에서 시인은 여의도에 높이 솟아있는 63빌딩 라운지에서 주변 일대를 조망하고 있다. 난장관같은 국회의사당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숲을 이룬 아파트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시인의 눈에 비친 오늘날의 여의도 모습은 '정연'하고 '평화'로우며 '아름답'기까지 하다.

과거, 한강개발 사업이 전개되던 단계의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 경관에서 탈피하여 현재 여의도 모습은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있다. 1986년 한강종합개발사업 완공으로 한강시민공원 여의도 지구에는 각종 체육시설 및 위락시설이 조성되었다. 1997년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을 시발점으로 하여 1998년 OB맥주공장이 이전한 자리에 영등포 근린공원이 들어섰고 여의도 광장은 여의도 공원으로 재조성되었다. 2002년에는 선유정수사업소가 이전한 자리에 선유도 공원이 조성되었다.

66) 윤대녕, 『코카콜라 에인』, 세계사, 1999, 33면.

67) 윤대녕, 『옛날 영화를 보러갔다』, 중앙일보사, 1995, 79면.

68) 윤대녕, 『피에로들의 집』, 문학동네, 2016, 210면.

69) 구상, 「원경(遠景)」, 『구상문학총서』 제2권, 홍성사, 2004, 221~222면.

### Ⅲ. 영등포 문학의 양상과 비전

#### 1. 영등포의 문학적 성과물들

영등포와 문학의 관련 양상은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1)소재로서 사용한 경우(김소진 등), 2)영등포 지역과의 관련성에 의해 중요해진 경우(영등포 출신 문인), 3)주제와 관련된 경우로 나뉘볼 수 있으며, 질적인 차원에서는 다만 문화사적인 가치를 지니는가 아니면 문학사적인 의미까지 확보하는가를 따져볼 수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는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 속에서 영등포와 관련된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져야만 하는 작가나 작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황석영의 소설들이다. 작가 황석영은 유년기 이후의 삶을 영등포에서 보냈는데 그 체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문학작품으로 창작해왔다. 『모랫말 아이들』에서 『철도원 삼대』에 이르는 소설은 영등포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텍스트이면서 동시에 문학사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작품들이다.

둘째, 김용운의 『안개꽃』(1986)이나 유영갑의 『짜락눈』(1997), 이명량의 『삼오식당』(2013)과 같은 소설들의 경우이다. 이 작품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등포의 삶을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해낸 소설들로 평가할 수 있다. 『안개꽃』의 2장은 “여의도(汝矣島)는 서울의 영등포구에 속하면서 한강 가운데 동서(東西)로 돌아있는 섬이었다. 사람들은 여의도를 흔히 너섬이라고도 불렀다. 너섬의 이웃엔 밤섬(栗島)이 자리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웃의 너섬을 개발하면서 강물의 흐름을 조절하려고 밤섬을 없애버렸다.”<sup>70)</sup>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소설에는 여의도 개발의 배경과 역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서울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땅콩밭으로나 쓰이던 큰비가 내리면 온통 물난리를 겪던 여의도가 해결책으로 떠올랐다고 하면서 “영등포구는 1970년 4월 6일 0시 45분을 기해 구(區)의 인구가 1백만 명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sup>71)</sup>고 적을 정도다. 1968년 1월 4일 시작된 여의도의 종합개발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곳의 비전은 ‘서울의 맨해튼’이다.

이렇게 본다면 최인호의 『적도의 꽃』이 비슷한 시기 소위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의 역사를 담은 소설이라면, 김용운의 『안개꽃』은 인도교를 사이에 두고 그 반대편에 있는 여의도의 세태를 그린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곳은 대한민국이 아파트공화국으로 불리게 되는 단초가 되는 만큼 소설은 부동산을 통한 부의 창출이라는 한국적 욕망을 다룬다. 그런 점에서 소설은 여의도라는 공간의 삶을 다루지만, 여의도만의 이야기

가 아니라는 한계점을 지니게 된다. “물과 섬을 잇고 있는 다리의 저편, 다시 말해 섬”<sup>72)</sup>의 독자성은 어느 순간에 한국인들이 모두 함께 뛰어든 욕망의 장소로 화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전통적인 의미에서 영등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다룬 소설이 유영갑의 『짜락눈』이다. 소설집 속에 담긴 중단편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산책자가 영등포 공간을 활보하면 어떤 소설이 씌어지는가란 물음에 대한 답변처럼 보인다. 소설 『짜락눈』을 읽는 일은 영등포라는 장소가 빚어내는 인물과 이야기를 만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소설가는 영등포와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작가의 말」에서 소설가 유영갑은 다음과 같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를 밝힌다. “나는 군대에서 제대한 후 젊은 객기를 밀친삼아 남해안 지방을 1년 넘게 떠돌아다녔었다.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와 정착한 곳이 영등포(永登浦)이다. 이런저런 직업에 종사하며 살아오는 동안 나는 삶의 대부분의 것들을 이곳에서 배웠다.”<sup>73)</sup>

이런 점에서 식민도시 경성의 중산층 인텔리였던 박태원의 시선과 유영갑의 관점은 서로 차이가 생겨난다. 전자가 주체성에 있어서 공간에 대한 치밀한 계산 속에서 소설 속의 공간을 이동하며 이야기들을 찾아낸다면, 유영갑의 소설 속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서민의 삶에 밀착하는 데 비해 완력에 가까운 체험담으로 채워지게 된다. 물론, 영등포에 대한 지적인 탐색이 없는 게 아니다. “경조지(京兆志)라는 이름의 옛날 지도에는 영등포가 수도의 꽃임을 상징하는 영등(英登浦)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영등포는 대도시의 자궁과 같은 곳이다. 손금이 닳도록 기계를 만지던 노동자들, 먼지가 뿌옇게 떠 있는 섬유 공장에서 희망의 날줄을 찾던 아가씨들, 역 근처의 낙엽같은 인생들, 늦은 밤 낮은 지붕 밑으로 둘러서던 사람들.”<sup>74)</sup>이라는 구절이 그렇다. 이 작품은 영등포 지역민들의 삶에 깊이 밀착하여 그 구체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너무 빠르게 감성적으로 인물들에게 동화되어버린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유영갑은 이외에도 장편 『그 숲으로 간 사람들』을 발표하기 했다.

한편, 이명량의 『삼오식당』을 비롯한 소설들은 영등포 지역에서 태어나서 터전을 이루고 살아낸 이가 소설을 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다. 소설 『삼오식당』은 작가의 삶과 소설 속의 이야기가 거의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지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즉, 수없는 이야기들이 작가의 입담을 빌어서 생동하는 구어체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최상의 경우에는 바흐친이 말하는 카니발리즘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는 반면, 그 인물과 세계를 응시하는 제3의 시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장광설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물론, 영등포는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이야기를 해오지 못한 소외된 장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명량의

70) 김용운, 『안개꽃』, 문예출판사, 1982, 33면.

71) 김용운, 『안개꽃』, 문예출판사, 1982, 34면.

72) 김용운, 『안개꽃』, 문예출판사, 1982, 34면·410면.

73) 김용운, 「작가의 말」, 『안개꽃』, 문예출판사, 1982,

74) 김용운, 『안개꽃』, 문예출판사, 1982, 100면.

소설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소설가적 책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이런 의미에서 영등포 문학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바로 평교사 최홍이의 『평교사는 아름답다』(열림원, 1999)와 1990년대 문학을 열어나고 또 어느 면에서는 1990년대 문학의 한계 또한 드러낸 작가 신경숙의 『외딴방』(문학동네, 1995)을 지적해야만 한다. 전교조 창립에 나선 평교사와 나중에 유명 작가의 길을 걷게 되는 공장 노동자와의 만남이 바로 영등포 여고 산업체특별학급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만이 아니라, 그들의 글들이 문학적으로 모두 의미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신경숙과의 인연」이라는 글과 『외딴방』은 그 관계성 속에서 읽을 때 훨씬 더 풍요로운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1979년에서 1981년에 걸친 이 만남은 당대의 현실과 두 인물의 개성이 결합되면서 문학사적인 풍경을 빚어낸다.

존재의 외딴방으로부터 신경숙을 구해내서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문학이고 글쓰기라면 이 글쓰기는 바로 영등포여고에서 평교사 최홍이와의 만남이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러한 열망은 있었고 그러한 계기가 아니었더라도 운명적으로 작가의 길을 걸었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다음과 같은 만남이 덜 중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동남전기주식회사 A라인의 1번과 2번인 외사촌과 나는 1979년 삼월 어느 날 오후 5시에 회사 앞에서 버스를 타고 공단 입구를 벗어나 신길동의 영등포여고에 간다. 교문을 들어서자 비탈의 끝 화단에 하얀 동상이 운동장 쪽을 보고 서 있다. 가까이 다가가 동상을 쳐다본다. 단발머리에 하복을 입은 소녀 동상이다. 나는 일학년 사반, 외사촌은 일학년 삼반.<sup>75)</sup>

입학식이 끝나고 교실에서 그들은 선생과 제자로서 만난다. 출석을 다 부르고 그는 입학식장에서의 교장선생님 말씀은 다 틀린 말씀이라며 “여러분이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들입니다.”<sup>76)</sup>라고 말하고 열일곱 살의 그녀는 맨 뒤에서 고개를 숙 빼고 선생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본다. “온종일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학교에 다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sup>77)</sup>라고 선생은 다시 말한다. 그게 나중에 작가가 된 학생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는 것이다.

그러하여 작가는 이렇게 말하게 된다. “내 아무리 다른 길로 돌아간다 하여도 내 글쓰기는 그해 여름을 기억했다. 내가 아무리 밀어넣고 밀어넣어도 그해의 여름은 끊임 없이 나의 내부를 뚫고 올라오곤 했다. 내가 그를 만나 웃고 있는 그 순간 속으로조차

75) 신경숙의 『외딴방(1권)』, 문학동네, 1995, 143면.

76) 신경숙의 『외딴방(1권)』, 문학동네, 1995, 144면.

77) 신경숙, 『외딴방(1권)』, 문학동네, 1995, 144~145면.

그해 여름은 스며들었다. 전혀 예기치 않았을 때조차 밤바람처럼 밀물처럼 안개처럼.”<sup>78)</sup> 그렇게 해서 작가에게 영등포는 바로 글쓰기의 문제가 된다. 그곳의 기억을 잊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소설 속에서는 옆에서 살았던 동료들의 기억을 통해서 YH사건과 가장 전면적으로 만나기도 한다. 기억 속에서 떠오르지 않는 것은 “동아일보나 한국일보 조사실에 가서” 자료들을 뒤적이며 보완한다.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어느 날 엔가 그녀는 열좌석에서 곤하게 자고 있는 소년과 마주치기도 한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의자턱을 꼭 쥐고서, 소년의 손톱은 더러웠다. 기름이 낀 것 같기도 하고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때가 낀 것 같기도 했다. 옆얼굴은 차가워 보였고 더벅머리가 이마를 가리고 있었다. 기차가 수원에 도착할 때까지 소년은 잠만 잤다. 다음 역은 영등포역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 나는 소년을 흔들어 깨웠다.

“영등포역 지났어요?”<sup>79)</sup>

외딴방은 가리봉동에 있지만 그곳에 가려면 영등포역에서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일곱의 작가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노트에 옮겨적고 있다.”<sup>80)</sup> 모두 그 소설의 서두만을 기억하는 데 작가는 그 마지막 장면을 적는다. 회사는 구로공단에 있지만 그 삶을 기억해내는 힘은 영등포에 있다. 외딴방은 가리봉동에 있지만 그녀들이 경험하는 도시는 영등포다. 그리고 외딴방의 비극이 있는 후에 그녀는 “대림동의 우진아파트”에 살게 되고 글쓰기가 있다. 그녀에게 “남산에 서울예술전문대학이 있다고 말해준 분”<sup>81)</sup>도 최홍이 선생이다.

이런 까닭에 신경숙의 『외딴방』은 평교사 최홍이의 「신경숙과의 인연」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문학이 만난 영등포의 한 역사가 되는 셈이고, 영등포가 문학을 통해 남기고 싶었던 전언이 되는 셈이다.

## 2. 영등포의 세 가지 방향

미래의 역사에서 영등포가 참조해야 하는 것은 문화 속에서 지역이 어떤 장소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적으로 살펴볼 때 영등포는 가장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들이 혼재하는 장소로 평가된다. 한국영화들 속에서 이런 여의도의 이미지는 「여의도」, 「김씨표류기」, 「돈」, 「더 테러 라이브」, 「타워」, 「괴물」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 그려진 것처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자본과 첨단도시의 장으로 그려진다.

78) 신경숙, 『외딴방(2권)』, 문학동네, 1995, 199면.

79) 신경숙, 『외딴방(2권)』, 문학동네, 1995, 257~259면.

80) 신경숙, 『외딴방(1권)』, 문학동네, 1995, 256면.

81) 신경숙, 『외딴방(2권)』, 문학동네, 1995, 246면.

동시에 여의도는 독립다큐 「몽상골목-문래동, 23년의 기록」(2014)에 그려진 것처럼 주변화되고 낙후된 장소들로 그려지기도 한다. 문제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풍요로운 삶이 이어지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일이다. 경제 없이 문화가 꽃 피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제는 쉽게 부패하고 붕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영등포는 무명의 가수 '자이언티'가 노래한 「양화대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란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지점을 연결하는 힘이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 삶의 자양과 방향성을 제공하는 일이다. 손아람의 산문 「양화대교」<sup>82)</sup>는 작은 추억담이지만, 이러한 문화인들에 의해 문래동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는 새삼 주목될 필요가 있다.

### 가. 랜드 마크

1985년 7월 27일에 준공되어 한강의 풍경 속에 서있는 63빌딩은 오랫동안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왔다. 수많은 문학작품들과 영화에서 63빌딩은 서울을 떠나거나 서울로 들어서는 이정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롯데월드빌딩이 새롭게 들어서고 서울타워가 각광을 받는 데 비해 63빌딩은 그 문화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그 중에서도 전망대, 아쿠아리움, 아이맥스관 등은 자칫 추억 속의 산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강에 자리잡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과 다양한 문화적 스토리텔링들을 조합한다면, 63빌딩과 여의도 일대는 충분히 경쟁력있는 장소로 재탄생할 수 있다. 한강유람선에 황포돛배, 신상카페, 선유도공원과 영등포시장, 노랑진수산시장, 대림동을 잇는 스토리라인을 만들어간다면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지역에서 관광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떠오를 수 있다.

### 나. 영등포의 역사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장소로서 영등포는 다시 떠올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영등포의 역사와 문화가 재발굴될 필요가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근대 산업단지가 태동하고 발전을 이끈 곳으로서의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 노동의 역사는 빈곤과 낙후의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동시에 재해석되어야 한다. 안재성이라든가 황석영 등에 의해 서서히 재발굴되고 있는 경성 트로이카를 비롯한 노동운동의 역사, 영등포산업선교회와 해방신학의 역사를 이념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재해석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임화의 「하늘」이 수록된 시집 『현해탄』과 지하련의 「도정」은 문화적인 힘을 지니고

82) 손아람, 「손아람 작가의 다리를 걷다 떠오르는 생각(3):양화대교」, 〈경향신문〉, 2019.7.1.

있다. 정지용이 칭찬하고 지하련이 즐겨 읊었다는 시 「하늘」은 다음과 같다. “동해 바다 가에 작은 촌은, / 어머니가 있는 내 고향이고, / 한강 물이 송얼대는 / 영등포 붉은 언덕은, / 목숨을 바쳤던 나의 전장.”<sup>83)</sup>같은 시집 속에 실린 「낮」이라는 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에 그려진 세계의 풍경이 당시의 영등포 지역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영등포에서의 임화의 행적은 거의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해방 후 지하련의 소설 「도정」에서 그들의 삶이 영등포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도정」은 “나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소시민과 싸우자! 싸움이 끝나는 날 나는 죽고, 나는 다시 탄생할 것이다. 나는 지금 영등포로 간다. 그렇다! 나의 묘지가 이곳이라면 나의 고향도 이곳이 될 것이다.”<sup>84)</sup>라는 구절에서 끝을 맺는다.

우태현의 범죄소설인 『적, 너는 나의 용기』(세움, 2015)는 여의도 셋강 지구에서 한 구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이를 추적하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주로 396세대와 연결된 과거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 소설의 제목은 임화의 시 「적」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는 다시 또다른 역사로 우리를 이끈다. 첫째는 마츠모토 세이초의 흔적이 드리워져 있다는 점이다. 『북의 시인 임화』를 쓴 사회소설의 대표적인 작가인 마츠모토 세이초와 임화가 이렇게 다시 만나고 있다. 둘째는 「적」이라는 시를 다시 읽어내려 한 또다른 한 사람의 시인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이다. 시인 김수영이 얼마나 깊이 임화의 영향 속에서 살고, 이를 극복하려 했는가는 그가 「적」에 대한 사유를 거듭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알고 보면 부인 김현경이라든가, 인천 출신으로 흑인시를 쓴 배인철이 더 가까운 곳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김수영은 영등포의 무엇을 직접적으로 시에 담은 적이 없다. 그것은 그가 살았던 구수동이 한강 건너편에 자리잡고 있는 것만큼이나 상징적이다. 그래도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시기에 그들은 여의도를 걷고 있다. 왜 그들이 거기를 걷고 있었는가는 더 깊이 탐구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아무튼 김수영의 아내 김현경이 그려낸 당시의 풍경은 다음과 같다.

한번은 단둘이 노량진 종점에서 백사장을 따라 여의도 쪽으로 걸어간 적이 있었다. 날이 얼마나 더웠던지, 강렬하게 내리쬐는 여름빛에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다. 하얀 잔모래가 깔린 강변 백사장을 걸다가 우리는 더위를 피해 여의도 섬 한가운테를 가로질러 갔다. 한참을 가다보니 그곳엔 얇고 넓은 웅덩이가 하나 있었다. 밀바닥이 흰히 드러나 보일 정도로 투명했다. 나는 마침 무더위에 지쳐 있었던 참이라,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훌훌 원피스와 속옷마저 벗고 알몸으로 물 속에 텀벙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난처한 표정을 짓던 수영도 나를 따라 옷을 벗고 알몸으로 물속에 뛰어들었다.<sup>85)</sup>

83) 임화, 「하늘」, 〈신인문학〉, 1936.8.

84) 지하련, 「도정(道程)」, 〈문학〉, 1946.8.

조선공산당의 기관지였던 〈해방일보〉 1945년 9월 19일 창간호 기사에는 영등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장소였는가가 담겨 있다. 이 시기에 ‘마리서사’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던 문인들은 모두 어느 정도는 이 날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기에 더욱 관심을 요한다.

천지를 뒤덮을 듯한 ‘해방 조선’의 만세! 지축을 진동할 듯한 ‘일본제국의 타도’의 보무! 그리고 ‘조선공산당 재건 만세!’의 함성과 연합군 환영의 흥분! 지난 9월 11일 정오경부터 ‘건준’ 주최로 경성운동장에는 부대와 영등포의 공업지대에서 화학, 금속, 기계, 철도, 체신, 토목, 출판, 섬유 등 각 산업별 남녀 노동조합 회원을 비롯하여 청년, 학도, 시민 등 그 외 근로인민대중들의 불타는 듯한 투혼과 강철 같은 단결의 힘은 여실히 발휘되어...<sup>86)</sup>

이상의 「서망율도(西望栗島)」란 글과 대화관 별관을, 경성트로이카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살려내야 하는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경숙의 『외딴방』과 그를 가르쳤던 교사 최홍이의 이야기(『평교사는 아름답다』, 열림원, 1999)는 신경숙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깊은 감동과 교훈을 준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 어떤 삶을 꿈꾸게 하는가이고, 이를 통해 실제의 도시 풍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 하는 문제다.

한국전쟁 이후에 이러한 영등포의 역사는 완전히 침묵하게 된다. 소위 ‘레드 콤플렉스’ 속에서 영등포는 그저 고통받는 침묵의 땅, 영등포역 주변의 매음굴과 같은 주변지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에 이곳은 다시 천천히 부활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78)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소설은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은강으로부터 낙원구 행복동에 이르는 장소는 경인산업단지의 중심으로서의 영등포를 연상케 한다. 난장이가 떨어져 죽는 굴뚝은 한 시대를 대표했던 시대의 희생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역사를 회의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이문열의 「구로아리랑」이라면, 마침내 황석영에 이르러서 영등포의 역사는 재조명되게 된다.

역사로서의 영등포를 가장 전면적으로 그려낸 작가가 황석영이라는 것은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유년시절의 경험으로부터 기억의 힘을 얻어낸 이 작가는 최근에 『철도원 삼대』를 통해 영등포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이전에 동화로 씌어진 『모래말 아이들』과 함께 영등포 문학의 대표작이라 할 만하다. 황석영의 소설은 1933년에 이재유에 의해 한강 연안에서 조직된 영등포 트로이카의 역사를 재조명한

다는 점에서 안재성의 『경성 트로이카』와 닮아 있다. 안재성은 광주항쟁 이후 수배자의 몸으로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찾아가면서 글쓰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영등포 지역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었다. 흔히 최초의 노동자 장편소설로 평가받는 『파업』(세계사, 1989)은 그 정점이자 분기점으로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에 의해 『피에타의 사랑』(웅진출판사, 1999) 이후에 절필했다가, 『황금이삭』(삶이 보이는 창, 2003) 이후에 다시 글쓰기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현상평전』(2007)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역사적 지평으로 관점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 시기 영등포 지역의 삶을 다소 다른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는 소설이 조성기의 단편 「위대한 소경」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들은 관악산에 자리잡게 된 서울대의 소설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김소진의 소설들과 비슷한 맥락에 놓여 있다. 「위대한 소경」은 연립주택의 지하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모조 진주알을 꿰는 일로 먹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봉준호의 영화 「기생충」의 전대에 속한다. 그런 지하방에 최류탄 가스냄새가 흘러들어오고, 주인공이 왜 눈이 멀게 되었는가가 설명되는데, 이때 영등포의 또 다른 역사가 기술된다. 원래 그는 월간 잡지사에서 일하면서 연립주택 3층의 23평짜리 집에서 살았다. 관악산에서 학생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해오던 그 날 이전에는 말이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무리 속에 끼어들지는 못하고 인도에서 그들과 함께 걷는다. 행렬은 신림 사거리를 지나 대방동을 끼고 돌아 영등포 역전으로 몰려간다. “영등포 역전은 각 방면에서 몰려오는 학생들로 금방 저수지처럼 가득 차 출렁거렸다. 대열이 도착할 적마다 먼저 도착해 있던 학생들이 박수를 쳐댔다.”

역전에서 얼마간 노래와 구호들이 불리지고 외쳐진 후 정말 막강한 세력을 이룬 대열이 여의도 방면으로 행진해 갔다. 나는 다리가 빠근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여의도로 향해 가는 대열을 그냥 놓칠 수가 없었다. 좀 뒤쳐져 광장 변두리를 통과해 가는데 빗방울이 하나둘 듣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빗줄기가 드리워져 시야를 가릴 지경이 되어 갔다. 비 내리는 여의도광장을 묵묵히 지나가는 길고길 대열과 그 복판에 떠 있는 검은 관은 사뭇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sup>87)</sup>

그가 최류탄에 맞아서 시력을 잃게 되는 것은 마포대교에서였다. 물론, 소설 속 연립주택이 있는 곳은 신림동이고 그는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도 그 시기에 세상을 떠난 박○○의 자취방을 찾아가 조문하는 내용이다. 이후의 영등포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굴뚝 공장들이 디지털단지 등으로 재편되면서 한편으로는 심각한 도시 공동화 현상이 생겨나게 된다.

85) 김현경, 『김수영의 연인』, 책읽는오두막, 2013, 29면.

86) 「조선공산당 통일재건 만세, 『조선인민공화국을 절대 지지하자』, 〈해방일보〉, 1945.9.19.

87) 조성기, 「위대한 소경」, 『왕과 개』, 민음사, 1988, 60~61면.

#### 다. 문화의 재생 : 대림동의 사례

- 문정희 외, 『아직 지나가지 않은 것들만 지나간다』(청색종이, 2017)
- 강이라, 「웰컴, 문래」, 『나, 거기 살아』(문학나무, 2019)
- 장형순, 『언덕 위의 아루스』(지콘디자인, 2017)
- 강영숙, 「문래에서」, 『아령하는 밤』(창비, 2011)

위의 소설들이 지닌 공통점은 철거와 아파트 건설을 근대화로 여겼던 과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문화가 어떻게 장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영등포 지역에서는 영등포 문인협회가 <영등포문학>이라는 회지를 발간하면서 지역의 문학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 오기도 했고 『최후의 제임령』의 고원정, 『대학별곡』의 김신, 여의도의 역사를 추적한 김용운, 「영등포」라는 시와 『기차에 대하여』(1990)라는 시집을 쓴 김정환, 『삼오식당』으로 대표되는 이명량 등이 영등포의 주변부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삶이 결여되었거나 지나치게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이에 비하자면 위의 작품들은 모두 문래동을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하려는 도시재생 사업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그 중에서도 문정희 외의 작가들이 쓴 『아직 지나가지 않은 것들만 지나간다』는 청색종이란 출판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인들의 결집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이 문래동의 골목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는 좀더 긴 시간을 두고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대체로 두 가지 점에서 주의할 만하다. 즉, 자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문화의 깊이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사동, 홍대 앞 거리 등의 경우처럼 문화 예술에 의해 거리가 변화되면,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문화가 크게 자리를 잡으면서, 그러한 변화를 이끌었던 문학 예술인들이 소외되어 버리는 현상을 대림동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대체로 지나치게 시각적이거나 감성적인 곳에 문화가 한정되지 않도록 깊은 역사적 시선을 통해 문화의 뿌리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 IV. 결론

개항 이후 구한말에 접어들어 영등포 지역에는 경인선 경부선 철도노선이 부설과 더불어 영등포역이 설치 운영되었다. 이로부터 영등포 지역 일대는 사람과 물자가 활발하게 교류하는 교통과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변모해나가기 시작했다. 지역의 이미지와 관련한다면 영등포역과 공장의 높은 굴뚝이 상징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시점이다.

사동팔달의 교통로와 많은 노동자의 존재를 배경으로 영등포 지역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과 각종 사회운동의 기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국전쟁기의 영등포 지역은 피난에 나선 이민들의 유입처이기도 했다.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조선족을 비롯한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삶을 일구어 가는 터전이 되기도 했다. 해방 이후, 영등포 지역의 커다란 변화는 여의도와 한강 개발에 의해 이루어졌다. 1970년대 군사퍼레이드를 벌인 광장을 중심으로 국가의 심장을 이루는 국회의사당과 KBS방송국이 건설되었고 서울의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63빌딩이 여의도에 건립되었다. 이에 따라 여의도는 한국 정치가 켜어지는 드라마의 현장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금융의 허브로서 새롭게 부상하게 되었다.

근현대기 한국문학에는 영등포가 가진 역사와 이미지들이 다양하게 묘사되어있다. 그 이미지들은 근대 수용의 상징인 철도와 영등포역·영등포공작장,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한강과 황포돛배·선유도와 한강나루, 사람과 물자들로 넘치는 영등포시장, 산업지대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여의도 공간의 다차원성과 판타지라는 다양한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등포의 이미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전형적 공간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복합공간으로 재개발된 영등포 역사(驛舍)와 주변의 전통시장, 유흥거리가 그것을 말해주듯이 영등포의 이미지는 과거의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면서 그 빛과 그들이 선명하게 교차하며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향해 열려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근대화 이후, 영등포 지역의 정체성이 멈추지 않고 언제나 달리는 ‘철도’와 결코 마르지 않고 부단히 흘러가는 ‘한강’의 생명력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 경제협력과 중국 서해안과의 경제벨트 구축 시대를 맞이한 영등포 지역의 미래는 밝다. 한민족의 대동맥인 한강 남안에 위치한 영등포 지역은 인접한 서해를 통해 세계로 빠르게 나아가 동아시아의 거점도시로 거듭 날 수 있다. 이러한 꿈은 육지와 연결된 강과 바다, 그리고 하늘을 포섭하는 영등포 지역의 새로운 역사와 이미지를 창출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 ■ 일반 단행본

- 남영우,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법문사, 2011.  
데이비드 로지(위음), 윤지관 이동하 김영희(옮김) 『20세기 문학비평』, 까치, 1987.  
리오 로웬탈, 윤준(옮김) 『문학과 인간의 이미지』, 종로서적, 1983.  
민궁기, 『영등포의 역사와 지명이야기』, 국학자료원, 2013.  
서대숙,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이론과실천, 1985.  
서울역사편찬원, 『식민도시 경성, 차별에서 파괴까지』, 서울역사편찬원, 20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永登浦 近代 100年史』, 2011.  
영등포산업선교회 6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1958-2018』, 영등포산업선교회, 2018.  
오토 프리드리히 볼로, 이기숙(옮김)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인명진, 『성문밖 사람들 이야기』, WCC한국준비위원회 대한기독교서회, 2013.  
철학아카데미, 『공간과 도시의 의미들』, 소명출판, 2004.  
편찬위원회, 『永登浦區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991.

### ■ 문학작품(집)

- 강영숙, 「문래에서」, 『김유정문학상 수상작품집』, 은행나무, 2014.  
강영숙, 『아령하는 밤』, 창비, 2011.  
강이라, 『나, 거기 살아』, 문학나무, 2019.  
구상, 『구상문학총서(제2권)』, 홍성사, 2004.  
김광섭, 「잡초들」, 『이산 김광섭 시전집』, 문학과지성사, 2005.  
김기진·박영희·엄홍섭·지하런, 『붉은 쥐/사냥개/송어/사십 년/도정 外』, 동아출판사, 1995.  
김영갑, 『씨락눈』, 푸른나무, 1997.  
김용성·유재용, 『도둑일기/관계 外』, 동아출판사, 1995.  
김용운, 『안개꽃』, 문예출판사, 1982.  
김원우, 「집승의 시간」, 〈문예중앙〉, 1985.3.  
김지하, 「지옥1」, 『타는 목마름으로』, 창작과비평사, 1982.  
김진경, 「영등포」, 『갈문리의 아이들』, 청사, 1984, 136쪽.

- 김한수, 『그대, 기차 타는 등 뒤에 남아』, 문학동네, 1998.  
문정희 외, 『아직 지나가지 않은 것들만 지나간다』, 청색종이, 2017.  
박성우, 「박성우의 'PoemEssay」, 〈서울타임스〉, 2011.10.22.  
박태원, 「길은 어둡고」, 〈개벽〉 제4호, 1935.3.  
신경숙, 『외딴방(1~2)』, 문학동네, 1995.  
신동호, 『장춘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 실천문학사, 2014.  
안재성 『파업』, 세계사, 1989.  
염상섭, 『만세전(萬歲前)』, 동아출판사, 1995.  
우한용 외 편 『한국 대표 신소설(下)』, 도서출판 빛샘, 2000.  
유순하, 「외토리」, 『빙어리 누에』, 문학과지성사, 1990.  
윤대녕, 『옛날 영화를 보러갔다』, 중앙일보사, 1995.  
윤대녕, 『코카콜라 애인』, 세계사, 1999.  
윤대녕, 『피에로들의 집』, 문학동네, 2016.  
이경배, 「영등포 공원의 아침」, 영등포문인협회 사화집 『둥지에서 날다』, 책나무, 2012.  
이광수, 『무정』, 동아출판사, 1995.  
이명량, 『삼오식당』, 은행나무, 2013.  
이무영·박영준·정비석, 『농민/모범 경작생/성황당 外』, 동아출판사, 1995.  
이상, 「서망울도(西望栗島)」(〈조광〉, 1936.3), 권영민 (위음) 『이상전집(4권)』, 뿔, 2009.  
이재익, 『영등포』, 도서출판 답, 2016.  
이청, 「영등포에 뜨는 달」, 소설문학, 1983.  
임화, 「하늘」, 〈신인문학〉, 1936.8.  
장현도, 『트레이더(1~2)』, 새움, 2012.  
장형순, 『언덕 위의 아루스』, 지론디자인, 2017.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현대문학북스, 2001.  
조성기, 『왕과 개』, 민음사, 1988.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성과학, 2010.  
조해진, 「완벽한 생애(1회)」  
최남선, 「경부철도가」, 신문관, 1908.  
최민, 「영등포 길」, 〈창작과비평〉, 1973.3.  
최승일, 「죄」, 〈별건곤〉 제7호, 1927.7.  
최홍이, 『평교사는 아름답다』, 열림원, 1999.  
한상유, 『영등포의 밤』, 문학바탕, 2018.  
현기영, 「아내와 개오동」, 〈작단〉, 1979.



황석영, 『삼포 가는 길 外』, 동아출판사, 1995.  
 황석영, 『철도원 삼대』, 창비, 2020.

■ 지도·사진·그림 자료 <목록>

순번	자료 유형	제 목
1	지도1	대동여지도(서울부분)
2	지도2	경조오부(대동여지도특별도)
3	지도3	경성 안내
4	지도4	영등포구 행정동
5	지도5	동여도
6	지도6	경성부 부대관
7	지도7	서울특별시 종합계획도
8	그림1	겸재 정선의 '선유봉'
9	사진1	서명응 문집 『보만재집(保晩齋集)』
10	사진2	1890년대 한강의 황포돛배
11	사진3	경부철도가 '광고'
12	표1	수집 문학작품 현황

■ 부록: 수집 문학작품 총목록

연번	작가	작품	구분	연도	발행처
1	최남선	경부철도가	시	1908	소년
2	엄상섭	만세전	소설	1924	고려공사
3	최승일	죄	소설	1927	별건곤
4	홍의동자(紅衣童子)	人薄命哀史, 아아不如歸라 名優李景雪	산문	1935	삼천리
5	박태원	길은 어둡고	소설	1935	개벽
6	이상	서망울도	산문	1936	조광
7	임화	하늘	시	1936	신인문학
8	임화	낮	시	1938	동광당서점
9	이광수	육장기	소설	1939	문장
10	지하련	도정	소설	1946	문학
11	박영준	파풍(破風)	소설	1969	현대문학
12	황석영	아우를 위하여	소설	1972	신동아
13	최민	영등포 길	시	1973	창작과비평
14	최인호	별들의 고향	소설	1973	조선일보
15	황석영	영등포 타령	소설	1975	문학사상
16	조세희	남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문	소설	1976	문학과지성사
17	현기영	아내와 개오동	소설	1979	작단
18	황학주	영등포의 밤에	시	1980	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19	김지하	지옥1	시	1982	창작과비평
20	김용운	안개꽃	소설	1982	문예출판사
21	김주영	객주	소설	1983	서울신문
22	김용성	도둑일기	소설	1984	현대문학
23	정규화	영등포	시	1984	실천문학사
24	이청	영등포에 뜨는 달	소설	1984	소설문학
25	박환용, 이우선	영등포에서	산문	1984	명지사
26	양성우	영등포 산조	시	1985	지문사
27	김원우	짐승의 시간	소설	1985	문예중앙
28	김정환	영등포	시	1985	민음사
29	강용준	영등포의 밤	소설	1986	동서문학
30	최봉	새벽에 영등포는	시	1987	청담문학사
31	이문열	구로아리랑	소설	1987	문학과지성사

32	조성기	위대한 소경	소설	1988	민음사
33	황석영	열애	소설	1988	창작과비평
34	김용운	황포 돛단배	소설	1988	현대문학
35	안재성	파업	소설	1989	사회평론
36	유순하	외토리	소설	1990	문학과지성사
37	김정환	기차에 대하여(시집)	시	1990	창작과비평
38	최홍이	평교사는 아름답다	산문	1991	열림원
39	이순원	그대 다시 여의도를 바라보지 못하리	소설	1992	문학과사회
40	이재무	영등포역	시	1992	실천문화사
41	김소진	적리(赤痢)	소설	1992	창작과비평
42	김소진	그리운 동방	소설	1992	현대소설
43	고원정	최후의 계엄령(1-3)	소설	1992	범조사
44	채정운	선유도	소설	1993	현대문학
45	김윤식	인생에 원한없기 또는 영등포	산문	1994	서울대학교출판부
46	최윤	집, 방, 문, 벽, 돌, 장, 뭍, 길, 물	소설	1994	문학동네
47	공지영	동트는 새벽	소설	1994	창작과비평
48	이상우	여의도 알리바이	소설	1995	해난터
49	김병중	영등포 뒷골목에서	시	1995	문학통신
50	최순애	영등포역	시	1995	글이랑
51	윤대녕	옛날 영화를 보러 갔다	소설	1995	중앙일보사
52	윤대녕	남쪽계단을 보라	소설	1995	세계사
53	신경숙	외딴방	소설	1995	문학동네
54	안재인	급뱃지(전8권)	소설	1997	파피루스
55	유영갑	싸락눈	소설	1997	푸른나무
56	김한수	그대, 기차 타는 등뒤에 남아	소설	1998	문학동네
57	이명량	꽃을 던지고 싶다	소설	1998	웅진출판
58	안정효	영등포에서	산문	1998	디자인하우스
59	이경관	영등포 로타리	시	1999	들꽃
60	홍상룡	영등포장미여관 203호	산문	1999	선우
61	윤대녕	코카콜라 애인	소설	1999	세계사
62	신동익	영등포의 밤	시	2000	교단문학
63	김진경	영등포	시	2001	문학동네
64	박상배	영등포 수첩	시	2001	현대문학
65	김선화	영등포역 대합실	시	2001	새천년문화사

66	방민호	화폭속에 담긴 영등포의 인간군상: 유명갑의 <짜락논>론	산문	2001	소명출판
67	황석영	모랫말 아이들(동화)	소설	2001	문학동네
68	이복자	영등포 거리	시	2002	리토피아
69	권대웅	영등포	시	2003	문학동네
70	방민호	영등포 여자	소설	2003	생각의나무
71	이명량	나의 이복형제들	소설	2004	실천문학사
72	구상	근황 2	시	2004	홍성사
73	구상	근황 3	시	2004	홍성사
74	구상	나는 이 속에서	시	2004	홍성사
75	구상	봄 국화	시	2004	홍성사
76	구상	서중우음(暑中偶吟)	시	2004	홍성사
77	구상	신령한 소유	시	2004	홍성사
78	구상	어느 돌덩이	시	2004	홍성사
79	구상	어느 원자연(原自然)의 삶	시	2004	홍성사
80	구상	어느 이웃의 이사	시	2004	홍성사
81	구상	원경(遠景)	시	2004	홍성사
82	구상	윤중제를 거닐면서	시	2004	홍성사
83	구상	잡초분재(雜草盆栽)	시	2004	홍성사
84	안재성	경성트로이카	소설	2004	사회평론
85	홍금자	영등포 공원에서	시	2005	모아드림
86	김광섭	잡초들	시	2005	문학동네
87	김태희	영등포역	시	2005	복센터
88	손제하	영등포역에서	산문	2005	문학관books
89	이용한	그녀의 영등포	시	2006	실천문학
90	윤제림	영등포 혹은 삼원색	시	2006	문학동네
91	황경운	영등포교도소 부활절 예배 및 성례식	산문	2006	신아
92	정시여	영등포의 밤	시	2006	한맥문학출판부
93	윤경호	16세 소년의 절규	산문	2008	만인사
94	황석영	개밤바라기 별	소설	2008	문학동네
95	권혁은	영등포의 꿈	시	2008	화서
96	유영호	영등포역 골목의 기억1,2	시	2009	엠아이지
97	조호진	영등포의 밤	시	2009	갈무리
98	이오래	영등포 공원에-노숙자의 가을	시	2010	차승
99	이경배	영등포 공원의 아침	시	2010	월간문학출판부
100	박영길	영등포 통신 연작	시	2010	문예춘

101	부성철	영등포구	시	2010	코드미디어
102	김수남	영등포를 지나며	시	2010	다운샘
103	김형영	영등포문학의 이모저모	산문	2010	영등포문인협회
104	김성진	영등포의 새벽	시	2010	대보사
105	이명	서핑하러 여의도로 간다	시	2010	문학아카데미
106	이명	여의도 만물상, 꿈을 골라보세요	시	2010	문학아카데미
107	박성우	박성우의 'PoemEssay' 영등포가 있는 골목	산문	2011	서울타임스
108	정은용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소설	2011	다리미디어
109	강영숙	문래에서	소설	2011	창비
110	고정희	반월시화9 : 영등포	시	2011	또하나의문화
111	오세운	아, 영등포	산문	2011	수필과비평사
112	김성수	영등포역	시	2011	책나무출판사
113	김숙희	영등포역의 노숙자	시	2011	서영
114	강영숙	문래에서	소설	2011	현대문학
115	신도현	여의도전쟁 판	소설	2012	형설라이프
116	김점숙	영등포역에서	시	2012	문학의전당
117	장현도	트레이더(1~2)	소설	2012	새움
118	장현도	돈	소설	2013	새움
119	이명량	삼오식당	소설	2013	은행나무
120	이상우	여자대통령	소설	2013	문지사
121	최정은	영등포 공원	시	2013	등대지기
122	김종철	영등포 블루스	시	2013	문학수첩
123	류신	영등포에서 승례문까지	산문	2013	민음사
124	이태순	영등포역	시	2013	새가람출판사
125	이태순	우리 영등포	시	2013	새가람출판사
126	한만수	금강	소설	2014	글누림
127	조해진	문래	소설	2014	문학동네
128	전원균	영등포 교도소!	시	2014	지식과감성
129	정호승	영등포가 있는 골목	시	2014	열림원
130	신동호	영등포에서 보낸 한 철	시	2014	실천문학사
131	김유기	영등포역	산문	2014	참글문화
132	은원영	오래된 사진, 1970	시	2014	동학사

		영등포역			
133	이미산	영등포	시	2015	현대시학
134	김현희	영등포 역에서	시	2015	서정문학
135	김현희	영등포교도소 독방 벽지엔	시	2015	서정문학
136	박명화	영등포중앙시장	시	2015	문학산책 사
137	우태현	적, 너는 나의 용기	소설	2015	새움출판 사
138	이영재	공장과 신화	산문	2016	학민사
139	고정순	때때로, 영등포	산문	2016	제철소
140	박재홍	어느 교도소장의 하루:33년 교정 공직 인생의 자전적 수필집	산문	2016	좋은땅
141	성근석	영등포	시	2016	문학의전 당
142	이재익	영등포	소설	2016	답
143	홍금자	영등포 공원 밤이슬에 젖는 사람아	시	2016	지혜
144	홍금자	영등포 신문이여-영등포 신문 20주년 기념에	시	2016	지혜
145	홍금자	영등포 역	시	2016	지혜
146	홍금자	영등포의 봄	시	2016	지혜
147	홍금자	영등포의 풍경	시	2016	지혜
148	윤대녕	피에로들의 집	소설	2016	문학동네
149	송재학	골목과 굴곡, 다음은 별자리	시	2017	청색종이
150	정진아	골목의 기억	시	2017	청색종이
151	방민호	팽이 없는 겨울	시	2017	청색종이
152	방민호	팽이 없는 겨울	시	2017	청색종이
153	조해진	나의 문장이 온 곳, 문래	산문	2017	청색종이
154	황선재	남겨진 꼬리	시	2017	청색종이
155	김혜영	달빛이 내리는 마을	시	2017	청색종이
156	이재훈	대장간	시	2017	청색종이
157	문정희	문래	시	2017	청색종이
158	정우영	문래	시	2017	청색종이
159	유지연	문래, 새로운 가능성으로의 이행	산문	2017	청색종이
160	정정화	문래동	시	2017	청색종이
161	황규관	문래동 마찌꼬바, 이후	시	2017	청색종이
162	전영관	문래동 장편	시	2017	청색종이
163	임정진	문래동에서 성수동을 보다	산문	2017	청색종이
164	오은	물래는 원래 문래	시	2017	청색종이
165	김이듬	밤의 거리에서 혼자	시	2017	청색종이
166	이병일	부식	시	2017	청색종이

167	이인아	블루 레몬 프린트	소설	2017	청색종이
168	르클레지오	빛나(서울 하늘 아래)	소설	2017	서울셀렉 션
169	서운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8-84	시	2017	청색종이
170	김응교	아래향	시	2017	청색종이
171	장형순	언덕 위의 아루스	소설	2017	지콘디자 인
172	김신주	에로티시즘@문래동	산문	2017	청색종이
173	신현철	영등포 노숙자	시	2017	그림과책
174	이기형	영등포 사람들	시	2017	소소리
175	고진하	오래된 골목	시	2017	청색종이
176	김순미	우리는 문래동을 아직 다 알지 못한다	산문	2017	청색종이
177	김태형	위험한 짐승	시	2017	청색종이
178	최연	장마	시	2017	청색종이
179	구선아	철꽃 피는 동네, 문래동	산문	2017	청색종이
180	허연	파란 대문이 있는 풍경	시	2017	청색종이
181	임태운	근방에 히어로가 너무 많사오니	소설	2018	황금가지
182	홍금자	영등포 시장	시	2018	신아출판 사
183	임남균	영등포 애가	시	2018	문학의전 당
184	한상유	영등포의 밤	시	2018	문학바탕
185	이명은	영등포역	시	2019	천우
186	임상호	옛 추억의 영등포 초등학교	산문	2019	등대지기
187	강이라	웰컴 문래	소설	2019	문학나무
188	손아람	양화대교	산문	2019	경향신문
189	최제훈	단지 살인마	소설	2020	현대문학
190	유태수	영등포시장	시	2020	도서출판 b
191	유영호	영등포역 골목의 추억2	시	2020	청어
192	최종원	대림동 연가	시		
193	조수경	오후 5시, 한강은 불꽃놀이 중	소설	2020	한겨레출 판
194	조해진	완벽한 생애	소설	2020	작가
195	황석영	철도원 삼대	소설	2020	창비

## 문학작품에 투영된 영등포지역의 사회상과 이미지 조사를 통한 문화경쟁력 제고방안

제안단체 :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연구포럼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입법담당관)

연구기관 : 신문대학교 문학이후연구소

책임연구 : 손종업

연 락 처 : 041-530-8256

관리번호 : 의연단20-36

-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며,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 할 수 있음)